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 學位論文

코어도식을 이용한 동사 「とる」와 복합동사「Vとる」의 인지론적 설명

2010年 8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專攻

朴 惠 京

文學碩士 學位論文

코어도식을 이용한 동사 「とる」와 복합동사「Vとる」의 인지론적 설명

指導敎授 孫 東 周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8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專攻

朴 惠 京

朴惠京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8月

主審 朴 榮 淑 (印)

委員 張 相 彦 (印)

委員 孫 東 周 (印)

목차

*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바탕이론 ····· 3
3. 선행연구 ····· 6
4. 연구방법 ····· 15

Ⅱ. 본론 ····· 17

1. 동사 「とる」에 대해서 ····· 17
1.1. 「とる」의 다의성 ····· 17
1.2. 「とる」의 코어도식 가설 ····· 19
1.3. 인지적 초점에 따른 이미지 분류 ····· 22
1.3.1. 「とる」의 이미지Ⅰ ····· 22
1.3.2. 「とる」의 이미지Ⅱ ····· 27
1.3.3. 「とる」의 이미지Ⅲ ····· 29
2. 복합동사 「Vとる」에 대해서 ····· 31
2.1. 복합동사 「Vとる」의 어휘수 ····· 31
2.2. 복합동사 「Vとる」의 코어도식 가설 ····· 34
2.3. 복합동사 「Vとる」의 이미지 분류 ····· 36
2.3.1.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 유형 ····· 36
2.3.1.1. 「획득」의 이미지Ⅰ ····· 37

2.3.1.2. 「제거」의 이미지 Ⅰ ····· 40
2.3.2.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는 유형 ····· 42
2.3.2.1. 「획득」의 이미지 Ⅱ ····· 43
2.3.2.2. 「획득」의 이미지 Ⅲ ····· 47
2.3.2.3. 「획득」의 이미지 Ⅳ ····· 51
2.3.2.4. 「제거」의 이미지 Ⅱ ····· 54
3. 본동사 「とる」와 복합동사 「Vとる」의 의미 관계 ····· 59

Ⅲ. 결론 ····· 62

참고문헌 ····· 64
용례출전 ····· 66
부록 ····· 67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 cognitive semantics account of a Japanese verb 「toru」 and Japanese compound verbs 「Vtoru」 using the core schema

Hye Kyoung Park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Ju S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ng the verb 「toru」 containing multiple meanings including opposite concepts and the aim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certain interrelation which makes this opposite concept become a polysemy, not a distinct word. Second, in case that the verb 「toru」 exists at a latter part in the compound verb, we tried to find out how the polysemy quality punction in the latter part of the compound verb. Third, we also investigated a difference in terms of nuance in the semantic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verb when it implies 「toru」's meaning and it uses alone. The verb 「toru」 has 73 meanings in the dictionary 「daijirin」. This study classifies the usage of verb 「toru」 into 7 categories by cognitive operations (core schema and focalization). It is one of the ways acquiring polysemy methods presented by cognitive semantics. In addition, by fluidifying the object which does not move, this study can explain 「toru」's opposite meaning organically;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classified the meanings of 「acquisition」 and 「elimination」 respectively.

Furthermore, by investigating compounds including 「toru」 as a latter part, this study also explain two cases separately; the former verb has 「toru」's

meaning (acquisitions and elimination) and it does not have that meaning. Like the verb 「toru」, after hypothesizing core schema and using the focalization, Images of compound verb 「Vtoru」 were classified as six categories; 「semetoru」 「odoshitoru」 「erabitoru」 「sukitoru」 「uchitoru」 「tsukamitoru」 「uketoru」 「kikitoru」 and 「nukitoru」.

If a main verb does not contain the meaning of 「toru」, such as 「semetoru」 「odoshitoru」 「erabitoru」 「sukitoru」 and 「uchitoru」, usage of the main verb is applied literally. However, when the former verb owns the meaning of the main verb 「toru」, like 「tsukamitoru」 「uketoru」 「kikitoru」 「nukitoru」, there are two cases; usage of main verb means literally and that of suffix signifies with main verb together. Also, when the former verb includes meaning of the main verb 「toru」, it can be more obvious semantically than when that it is used alone. The difference can be found by comparing with image schema of verbs owned similar meanings.

The result of the compound verb 「Vtoru」 as the main verb 「toru」, it can be possibly explained by the meaning (acquisition and elimination), meaning that usage of main verb 「toru」 has a large influence on the result of compound verb 「Vtoru」. It is clearly revealed by deformation of core schema, and the method of acquiring meaning will be applied in understanding of polysemy or compound verbs that is difficult to know the sense difference.

Ⅰ. 서론

1. 연구목적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단어를 이해하려면, 학습자의 모어와의 대응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의어 같은 경우 하나하나 모어에 대응시켜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법으로, 근년 인지의미론에서 코어도식을 이용하여 의미를 습득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어 동사 「とる」는 하나의 어(語)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반대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다의어이다.

동사 「とる」가 가진 반대의 개념이 어떠한 관련성으로 별개의 어(語)가 아닌 다의어로써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다의성을 가지는 동사 「とる」가 복합동사의 후항으로 쓰인 경우, 후항에서는 그 다의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복합동사는, 넓은 뜻으로 둘 이상의 어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동사의 기능을 하는 복합어[1]를 말하는데,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

1) 飛田(2007:169)는 복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単独の用法をもつ二つ(以上)の単語が結合して新たに一語としての意味・機能をもつに至ったもの。できあがった複合語においては、材料となった単語はもはや単語ではなく、語構成要素(語基)に成り下がっている。したがって、語の構造という面から見れば、二つ(以上)の語基から成る合成語が複合語である。

그리고, 「복합동사」라는 용어에 대해 武部(1953:461)는 「動詞の連用形に動詞が接続し、全体として一つの動詞のように用いられている形を複合動詞と名づけ、こういう複合動詞の前半になっている動詞を前項動詞、後半になっている動詞を後項動詞と名づけることにする。」라고 하고, 石井(1988b:281)는 「動詞と動詞とが結びついて一語の動詞となったもの。一般に「複合動詞」といわれているものをここでは「合成動詞」と呼ぶことにする。」라고 하며, 합성동사를 복합동사와

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복합동사의 쓰임이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학습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姫野(1999:20)는 복합동사의 의미면에서 그 분류법[2]을 제시하면서, 후항동사 「つける」와 같이 다의성을 가지는 후항동사를 구분하는 데는 그러한 분류법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복합동사 하나하나를 그 분류법에 적용하여 의미를 기억하기가 쉬울 것인가 하는 문제와 모든 복합동사에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동사 「とる」를 후항으로 하는 복합동사 「受け取る」를 살펴보면, 전항동사 「受ける」가 이미 「획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획득」의 의미를 가진 동사 「取る」가 접속한 형태이다. 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두 동사가 결합하여 쓰이는지, 전항동사가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와 결합하여 쓰였을 경우 그 뉘앙스의 차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한 차이점 규명 또한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보조결합동사로 세분하고 있는데, 본고는 武部의 정의를 따라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분류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影山(1993,1997)의 분류에 따라 A류(어휘적복합동사), B류(통어적복합동사)로 나누고, 동사의 의미구성을 문으로 바꿔본다.
① 두 동사를 사용하여 바꿔 말한다.
(a)병렬관계:「～して～する」「～したり～したりする」「～して、その結果すなわち～する(ことになる)」
(b)비유적관계:「～するようにして、～する」
(c)주술, 보충관계:「することが～する」「することを～する」
② 후항동사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投げ込む→投げて、中に入れる)
③ 전항동사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さしつける→押してつける)
④ 두 동사 모두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落ち着く)

2. 바탕이론

다의어 습득의 한 방법으로, 여러 의미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하나의 단순한 도식(코어도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인지 의미론에서 제시되었다.

코어도식론은 田中(1990, 2004), 松田(2001, 2006) 등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田中(2004)가 설명하고 있는 코어이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인간은 시행착오를 거쳐 언어사용을 함으로써, 신체감각과 같은 언어직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직관에 의해, 설명이 불가능할지라도 어떤 표현의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움을 아는 것이다. 외국어인 경우는 그러한 직관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코어이론의 도입이다.

코어(core meaning)는 학습의 산물이며, 문맥을 사상(捨象)한 경우의 의미를 말한다. 학습에는 일반화라는 인지적 조작을 수반하게 되는데, 일반화란 구체적인 문맥을 사상(捨象)하여 문맥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추상화에도 가깝다. 이러한 일반화가 진행되면, 탈문맥적인 코어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코어는 일반화·추상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의식되지 않는다.

이러한, 학습에 있어서의 일반화의 과정에 착안하여 図1과 유의할 점 두 가지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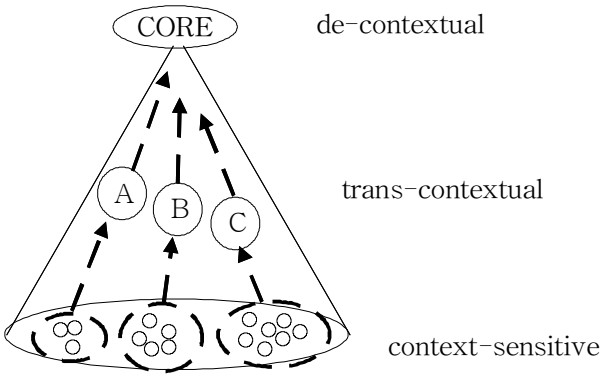


図1

첫째, A, B, C라는 세 가지 의미 타입으로 나뉘어졌을 경우, 의미 타입의 사이에는 프로토타이프 효과가 인정된다. 그리고, 각 타입내의 용례 중에도 프로토타이프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의미 타입 중에서도 어떤 용례가 프로토타이프성이 높게 된다.

둘째, 코어는 추상도가 높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것이다. 가설된 코어의 타당성은 논리적 타당성과 심리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영어 동사 「take」를 예로 들어 코어를 살펴보면, take(x, y)라는 함수관계에서, x와 y에 값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의 「take」의 의미가 코어인데, 다음 문장에서 x와 y의 값에 따라 「take」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a) John took some pills. → 「존은 약을 먹는다.」로 해석된다.

(b) The bus takes 500 people. →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코어이론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해석의 배후에 공통항으로서의 코어를 상정한다. 이러한 코어를 도식으로 파악하여, 도식의 인지적 조작(초점화, 회전, 투영, 도식융합 등)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도식은 마음 속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이 중요하고, 다른 부분은 배경이 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田中(2004)).

본 연구는 동사 「とる」와 복합동사 「Vとる」를 대상으로 코어도식을 초점화라는 인지적 조작을 이용해 다의어 분석을 하는데, 초점화란, 코어도식의 어느 부분(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형체(図, figure)로써 전경화하고, 다른 부분을 배경(地, ground)화하는 조작을 말한다. 배경이 되는 부분일지라도 의미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코어도식론의 관점이다.

松田(2006:126)는 코어도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コア図式」は当該語のコアスキーマ(概念イメージ)を図式表象したものであり、文脈上の具体的な用法の意味図式ではない。従って、比喩的にいえば、コア図式にはしみの見え方が角度によって異なるように、文脈・状況によってさまざまな「見え姿」があり、各用法・用例の心的表象はコア図式のバリエーションとして描くことができる。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3. 선행연구

3.1. 동사 「とる」에 대한 연구

동사 「とる」의 다의성에 대해 코어도식을 이용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박수경(2003b)과 松田(2006)가 있다. 이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国広(1997)에서 제시된 「とる」의 현상소를 근거로 하고 있다. 먼저, 国広(1994)가 제창한 「현상소」의 의미를 살펴보고, 国広(1997)에서 제시된 「とる」의 현상소를 비롯하여, 위의 두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3.1.1 国広의 연구

国広(1994:23)는 동사 「とる」를 예로 들어, 「とる」의 주된 의미를 「획득하다」와 「제거하다」로 보고 「인지적 다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このふたつの意味の間には概念的には何の関連性もない。むしろ反対の関係にある。しかし、手の動作そのものを見ると、それは同一である。つまり同一の動作を心理的にどのように捉えるかによって異なった概念的把握をしているのである。（中略）
>
> 我々が外界を心理的にどのように捉えるか、どのように認知するかということを中心においているので、そうして生じた多義を他の場合と区別して「認知的多義」と呼ことにする。

위 설명중의 「동일한 동작」을 「현상소」라고 하는데, 国広(1994:25)는 「현상소」를 제창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ある同一の現象に基づく認知的多義が認められるならば、意義素はふたつ以上になり得る。この同一の現象のことを「現象素」と呼ぶことにしよう。

「현상소」와 「인지적 다의」의 관계를 図2와 같은 도식으로 나타내고 있다.(国広(199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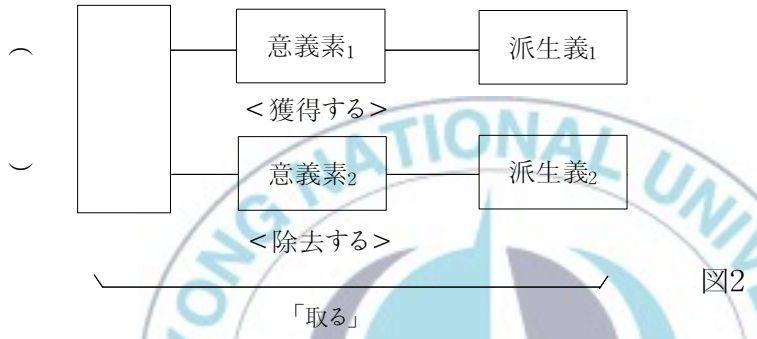


図2

国広(1997:227-229)는 『大辞林』의 의미 구분을 바탕으로 의미를 체계화하고, 체계화의 근거로서 「とる」의 현상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どこかに置いてある物を手でつかんで、そこから引き離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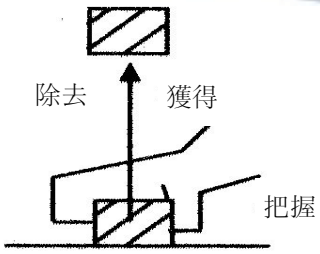


図3 「とる」의 현상소

이 현상소를 인지적으로 「파악」「획득」「이탈」이라는 세 가지 요소

로 분해하였고, 「획득」「이탈(제거)」이라는 상반된 두 의미는 동일한 동작을 인지적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며, 인지적 다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1.2. 박수경의 연구

박수경(2003b)은 国広(1986:8) 가 제시한 「とる」의 기본적 용법인 「机の上の本をとる」를 바탕으로 国広(1997)의 현상소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手の届く範囲のあるところから、対象をつかんで、手などの自分側に、移動させる。
「起点」　「移動法」　「着点」(方向と移動)　「移動」

그리고, 하위단위(구성소)를 넷(기점, 이동법, 착점, 이동)으로 나누고, 각 요소에 초점이 있는 용례를 들어, 요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이 현상소를 도식(코어도식)화 하여 図4와 같이 제시하고, 각 구성소를 초점화 하여, 「とる」의 의미를 구체적 동작(기본의미)을 3가지로 나누고, 총 9가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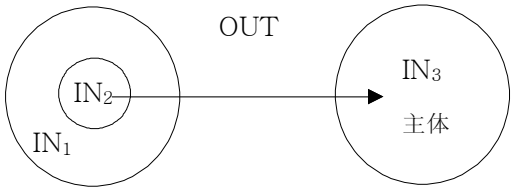


図4

IN_1 : 기점
IN_2 : 이동법
IN_3 : 착점 (방향과 이동)
→ : 이동

초점이 있는 곳	의미
IN_3（착점）	基本義① 何らかの方法で対象を確保して主体の制御領域に移す
	獲得
	解釈
IN_2（이동법）	基本義② 何らかの方法で対象を確保し制御する
	捕獲、確保
	占有
	遂行
이동	基本義③ 身の回りに移す
	選択、抽出
	作成
IN_1（기점）	除去

<표1> 박수경(2003b)의 의미분류

박수경(2003b)이 제시한 현상소의 구성소 중 이동법을 나타내는 「対象をつかんで」라는 부분에서 「つかむ」라는 동작이 전형적인 이동법이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1)(2)의 용례에서는 이동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1) 彼氏が不誠実な行動を取ったみたいなことは言ってた。 <国研>

(2) 天野遠景にはじまった鎮西奉行は、その後中原親能が任命され、さらに武藤資頼が任命された。頼朝は巧妙な手段を取った。<国研>

3.1.3. 松田(2006)의 연구

松田(2006)는 国広(1997)의 「とる」의 현상소와 인지적 3요소(파악, 이탈, 획득)를 재검토하여, 図5와 같은 코어도식을 제시하였다.

とる＝「元ある場所・状況(移動元)」から対象を「主体のコントロール可能領域(移動先)」に移し、それを意図・状況に適うように扱う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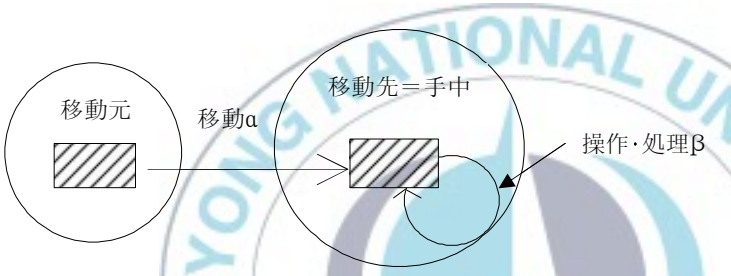


図5

그리고, 초점화에 따라 동사 「とる」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用法A：対象を「その場からなくする」ことに焦点がある用法
用法B：対象を「別の場所に移す」ことに焦点がある用法
用法C：対象を「わがものにする」ことに焦点がある用法
用法D：対象を「扱えるところに移す」ことに焦点がある用法
用法E：対象を「扱えるところに移して、扱う(操作、処理など)」ことに焦点がある用法
用法F：対象を「扱う」ことに焦点がある用法

「舵をとる」와 「舵を握る」, 「イノシシをとる」와 「イノシシをつかまえる」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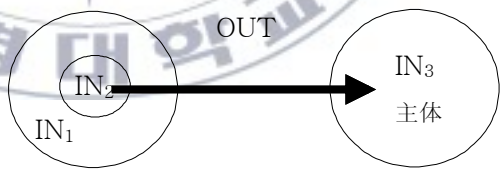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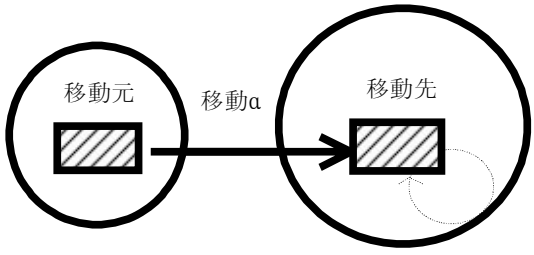
미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도식에 「조작·처리β」를 설정하였는데, 아래의 용례(3)에서는 대상(神学博士号)을 획득한 것 까지는 알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대상의 조작·처리에 관한 의미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조작·처리에 관한 의미는 문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코어도식은 구체적 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식이 아니라는 코어 이론에서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福島禎一師はカトリック教会で、ヨーロッパに留学せず日本で神学博士号を取った。初めての日本人神学者であった。<国研>

3.1.4. 박수경과 松田의 초점

박수경(2003b:296)과 松田(2006:127)는 같은 상황으로 생각되는 용례를 들어 초점을 달리하여 도식을 제시하였다.

	용 례	도 식
박수경	「料理を小皿にとる」	
松田	「大皿のサラダを小皿にとった。」	

두 도식에서 박수경은 대상의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松田는 이동원,

이동, 이동처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인간이 외부세계를 이해할 때 주관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데, 같은 상황을 서술하는 경우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서술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3.2. 후항동사 「とる」에 대한 연구

武部(1953:474)는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 「受け取る」를 예로 들어 후항동사 「とる」를 「침입」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적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이는 「とる」의 방향인 「자기쪽」이 단순히 방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内」로의 내부이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내부이동은 동사 「とる」의 특성으로 전·후항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동사 「とる」의 의미와 연관하여 「Vとる」의 의미를 기술한 것은 森田(1989)가 있다.

森田(1989:823)는 후항동사 「とる」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면을 제시하고 있다.

> 「とる」が他の事物を自己側に引き入れる行為であるところから、
> [1]自己側に取り入れる意を添える。その結果、
> [2]対象が取り去られ、抹殺消滅する意を添える。

그리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는 동사(刈り取る, 吸い取る, 剥ぎ取る 등)와 둘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受け取る, 写し取る, 討ち取る, 拭い取る 등)를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왜 그런 분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新美(1995:121)는 후항동사 「とる」가 타동사에 접속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意志性の他動詞について、その行為が意識的に行われることを表す。対象の処

置は、行為者の対象に対する価値観によって異なる。

이처럼, 「Vとる」의 의미 용법에 대해 전반적 설명보다는 부분적 설명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전항동사와의 의미적 관계에서 「Vとる」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4. 연구방법

동사 「とる」의 다의성과 동사 「とる」를 후항으로 하는 복합동사 「Vとる」의 관계 규명을 위해, 복합동사 「Vとる」의 고찰에 앞서, 동사 「とる」의 의미용법의 분류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기로 한다.

① 동사 「とる」를 인지적 다의어로 제시한 国広(1994)를 따라, 「とる」의 상반된 개념이 동일한 동작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고, 国広(1997)의 현상소를 수정하여 「とる」의 의미를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식(코어도식)을 가설한다.

② 문맥이 있는 용례를 들어 초점화에 따라 도식이 어떻게 변형하고, 어떤 용법을 가지는지 분류하고 설명한다.

③ 동사 「とる」가 복합동사의 후항으로 쓰인 경우, 『逆引き広辞苑第五版対応』의 어휘를 기준으로 용례를 수집한다.

④ 전·후항동사의 의미적 관계에서, 크게 전항동사가 후항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는 유형과 함의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누고, 함의하는 유형을 다시 전항동사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는 동사별로 재분류한다. 이는, 전항동사가 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는 경우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와 결합하였을 경우의 뉘앙스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는 「攻め取る」「掴み取る」「受け取る」「聞き取る」「抜き取る」를 각 이미지의 대표로 든다.

⑤ 복합동사 「Vとる」는 본동사 「とる」의 코어를 그 기초로 깔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항동사의 이미지 도식과 본동사 「とる」의 이미지 도식의 결합의 결과인 「Vとる」의 코어도식을 가설한다. 인지적 초점에 따라 각 동사가 어떠한 이미지 도식을 가지는지 살펴보면서, 본동사

「とる」의 어떠한 용법이 작용하는지 고찰한다.

아울러, 전항동사가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와 후항동사가 접속했을 때, 그 의미 변화를 고찰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Ⅱ. 본론

1. 동사 「とる」에 대해서

1.1. 「とる」의 다의성

『大辞林』에서는 「とる」에 대해 크게 10가지 용법으로 분류하고, 소구분으로써 73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10가지 용법과 소구분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분	소구분
(1)手に持つ。	①書棚の本をとる。②船の舵をとる。③着物の裾をとる。④政権をとる。⑤事務をとる。⑥明日のおやつに半分とっておく。⑦自説をとって譲ろうとしない。
(2)それまであった所から自分の側に移す。	①お菓子を一つずつとる。②きのこをとる。③すずめをとる。④指揮をとる。⑤料理を小皿にとる。⑥月給をとる。⑦食事をとる。⑧睡眠をとる。⑨休暇をとる。⑩注文をとる。⑪出前をとる。⑫弟子をとる。⑬息子を兵隊にとられる。⑭天窓から明りをとる。⑮手をとって教える。⑯連絡をとる。⑰学位をとる。⑱人質をとる。
(3)それまであった場所から別のところに移す。	①しみをとる。②眼鏡をとる。③本のカバーをとる。④痛みをとる。⑤財布をとられる。⑥命をとる。⑦テレビに気をとられる。⑧ぬかるみに足をとられる。⑨税金をとる。⑩切り札でとる。⑪初回に二点をとる。⑫その胡椒をとってください。⑬かく官爵をとられず。
(4)身に負う。引き受ける。受け止める。	①他社に後れをとる。②責任をとる。③客をとる。④跡をとる。⑤年をとる。⑥罰金をとられる。⑦反対派にとってじゃま

	な存在。
(5)選び出す。選んで決める。	①どちらの方法をとるべきだろう。②新卒をとる。③強硬な手段をとる。④学者への道をとる。⑤史実に題材をとった作品。⑥主をとる。⑦クジをとる。
(6)作り出す。ある形にしてとどめる。	①大豆から油をとる。②洋服の型をとる。③事件がはっきりした輪郭をとる。④ノートにとる。⑤記念写真をとる。⑥データをとる。
(7)数量や物事を知る。おしはかる。	①脈をとる。②平均をとる。③出席をとる。④冗談を本気ととられる。⑤バランスをとる。⑥機嫌をとる。
(8)場所や時間を占める。	①席をとる。②書斎を広くとる。③金曜の最終便をとってある。④準備に手間をとる。⑤床をとる。
(9)手・足・体などを動かす。ある動作をする。	①リズムをとる。②横綱と一番とる。
(10) ————	①人、木石にあらねば、時にとりて、物に感ずる事なきにあらず。 ②例にとる。

사전의 분류를 살펴보면, 그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용법과 그에 해당하는 용례가 의미적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용법인 「手に持つ」와 그 용례 「事務をとる」가 그러하다. 이와 같은 경우, 학습자로서는 무작정 의미를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다. 또한, 「お菓子を一つずつとる」와 「しみをとる」에서의 「とる」는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떤 관련성이 있기에 반대의 의미를 동사 「とる」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国広(1986:5)는 다의어에 대한 정의를 「意味的に関連付けられる二つ以上の意味を持つ語」라고 하며, 그 문제점으로서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다의어로 아니면 다른 의미로 취급해야 하는지 의미적 관련성의 정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2. 「とる」의 코어도식 가설

国広(1997:228)가 제시한 「とる」의 현상소 「どこかに置いてあるものを、手でつかんで、そこから引き離す」에서 「引き離す」라는 부분은 대상의 이동을 나타낸다. 또한, 이동한 대상의 착점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동수단을 나타내는 「手でつかんで」라는 부분은 대상의 착점이 주체가 대상에 대해 제어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森田(1989:823)는 「とる」에 대해 「対象とする事物に作用·行為を加えて、自己側の領域にうつす」라고 하였는데, 「自己側の領域にうつす」라는 부분에서 대상의 착점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박수경(2003b)의 「とる」의 현상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동법」은 앞서 용례 (1)(2)에서도 살펴봤듯이 동사 「とる」의 모든 용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코어도식의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박수경(2003b:289)은 「현상소」와 「코어도식」이 상통한다고 보고 있지만, 「현상소」는 완전히 탈문맥화 된 「코어도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国広(1997)가 제시한 「とる」의 현상소를 수정하여 코어도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とる」= 어느 영역에 존재하는 것을 주체가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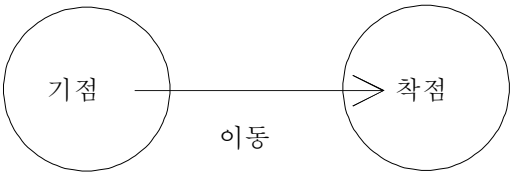


図6 「とる」의 코어도식

図6에서 「기점」은 「어느 영역」을 말하고, 「착점」은 「주체가 제어 가능한 영역」을 말한다.

山田(1993:79)는 「年をとる」「型をとる」「昼食をとる」등을 고정표현으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미특징을 생각해야 하고, 그 나머지 용법은 다음과 같은 의미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トル ＜主体が、一定の領域内に存在するものに働きかけて、それが主体のものとなる状態にする＞

하지만, 「とる」의 코어도식에 초점화를 이용한다면, 山田(1993:79)가 개별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 고정표현도 아울러 의미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초점화에 의해 코어도식은 변형하게 되는데, 이 때 각 용법이 나타내는 이미지를 도식화한 것을 松田(2006:126)를 따라 「이미지 도식」이라 하고, 가장 초점이 있는 부분을 굵은 선으로 나타내며, 이미지 도식에 나타나는 선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 : 도식에서 가장 초점이 있는 부분

② ＿＿＿ : 대상의 존재 영역이나 이동이 인지 주체의 의식 안에 있다.

③ ..... : 대상의 존재 영역이나 이동이 인지 주체의 의식 밖[3]에 있다.

3) 「의식 밖에 있다」라는 말은 대상의 존재 영역이나 이동이 실제 있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에서 ③으로 갈수록 배경화 되는 것인데, 山梨(1995:103)는 동사 「出す」를 예로 들어, 공간영역이 단계적으로 배경화 되는 것을 図7과 같이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c)は、(a)から(c)にいくにしたがって、相対的に容器のイメージスキーマが背景化されていく過程を示している。ただし、この種のイメージスキーマの背景化は、(a)(b)(c)(d)の段階に明確に区別されるわけではない。厳密には、この背景化の過程はグレイディエンスを成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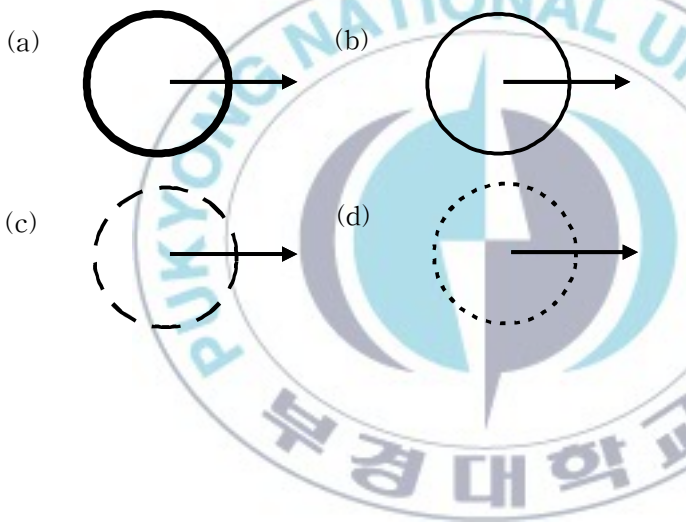


図7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1.3. 인지적 초점에 따른 이미지 분류

동사 「とる」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에서 대상의 이동성의 유무에 따라 의미 분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이동의 배경화를 상정함으로써 山田(1993:79)가 분류한 고정 표현을 포함하여 동사 「とる」의 모든 용법을 획득면과 제거면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초점에 따라 동사 「とる」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총 7가지로 분류한다.

용법A : 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긴다.
용법B : 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
용법C : 대상을 해석·이해한다.
용법D : 대상을 선택하여 이동시킨다.
용법E : 대상을 카피한다.
용법F : 대상을 컨트롤한다.
용법G : 대상을 제거한다.

1.3.1. 「とる」의 이미지 I

1.3.1.1. 용법A : 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긴다

(4) 最後の一件の電話をかけるために、州波はさらに重くなった手で、また受話器を取った。 <国研>
(5) 僕らは懐中電灯と歯ブラシを交換した。僕はトガリバルブを手に取り、彼女は懐中電灯を支えた。 <100回:55>

용법A는 国広(1986:8)가 말한 「とる」의 기본적 용법인 「机の上の本をとる」와 같은 경우의 용법으로써, 대상(受話器, トガリバルブ)은 기점에서 이탈하여 착점(手)으로 이동한다. 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용법으로, 이동과 착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 획득을 나타낸다(図8).

앞서 설명한 田中(2004)의 코어이론에 따르면, 용법A의 용례는 「획득」의 이미지를 가지는 여러 용례 중 프로토타이프성이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획득」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大辞林』에서는 「手に入れること。自分のものにすること。努力や苦心の末に得たことをいう場合が多い。」라고 하고 있고, 『広辞苑第四版』에서는 「手に入れること。得ること。」라고 하고 있다.

「手」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 제어 가능한 곳이다. 즉, 「手に入れること。」란, 제어 가능한 곳으로 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어 가능한 곳에 들이는 것만으로, 그 대상을 나의 것으로 한다는 의미까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어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용법A」로 하고, 「획득」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결국, 인지 주체가 착점에서 대상을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획득」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国広(1997)의 인지적 3요소 중 「파악」과 박수경(2003b)에서 「획득」의 의미와 별개의 의미로 분류한 「구체적 동작」을 본 연구의 입장에서는 「획득」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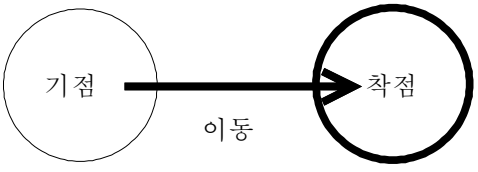


図8 「とる」의 이미지 도식1

1.3.1.2. 용법B : 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

(6) 金が手に入るとすべてゲーセンにつぎ込んでなくなると家で親のお金を取ったり、クラスの人間の財布からこっそり取ったり、ゲーセンで席をたった隙に荷物の中から財布を取ったりするということを昨日彼の口から聞いて驚きでした。 <国研>

(7) 館岡が、ちり鍋から、ふぐや野菜を皿に取った。 <国研>

(8) また、海幸彦と山幸彦の神話は、広く知られており、そこでの「さち」とは、釣り針や弓矢という獲物を取るための道具ないし獲物そのものを意味している。 <国研>

(9) たまたま出勤してきた同期の男と、遅めの昼食を取った。 <100回:118>

(10) 淳が児童文学賞を取った話は妙子から聞いていた。 <国研>

(11) 一日三回、あいた時間に睡眠をとるスタイルですが、比較的夜型なので、人の少ない深夜のファミレスでドリンクバーを利用しながら原稿を書きます。 <国研>

(12) 江上辞任は、現職局長逮捕という事態をさけるため、神山辞任は一連の不祥事に対する責任を取ったためとみられた。 <国研>

(13) わたしたちは市街を抜けて海岸ぞいに走り、海に面した白い大きなホテルに部屋を取った。 <国研>

(14) 奥の四人掛けテーブルでは中年女性三人がおしゃべりに興じていた。入口近くの二人掛けに一人で席を取った。 <国研>

(6)~(14)에서는 대상(財布, ふぐや野菜, 獲物, 昼食, 児童文学賞, 睡眠, 責任, 部屋, 席)을 주체가 제어 가능한 영역(착점)으로 이동시켜 주체의 것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대상을 제어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넓게는 「획득」의 의미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때, 착점으로

이동한 대상이 단순히 의식 안에 있다기 보다는 내 것으로 하는 것에 초점이 놓이는 용법이다.

(10)～(12)는 추상적 대상(児童文学賞, 睡眠, 責任)의 획득을 나타내는데, 구체적 대상에서 추상적 대상으로 갈수록 원래 존재 했던 곳(기점)은 배경화 되어 図9와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진다.

(13), (14)의 대상(部屋, 席)은 고정된 장소이지만, 심리적으로 대상의 이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시적이지만 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는 것까지 인지된다.

이 용법의 이미지 도식은 대상의 추상도에 따라 図8 또는 図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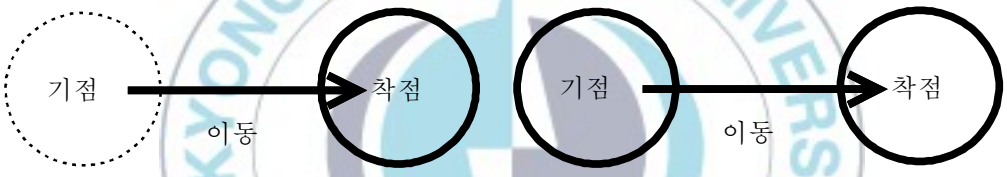


図9 「とる」의 이미지 도식1-ⅰ　　図10 「とる」의 이미지 도식1-ⅱ

図10은 (7)에서 「ふぐや野菜」를 조금씩 옮기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로, 이 때는 기점, 이동, 착점 모두 초점이 놓이게 된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 초점을 달리하면, 행위가 1회적 혹은 반복적인 것으로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와 같이 인지적 초점에 따라 이미지 도식은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도식화 하여 설명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코어도식을 이용한 설명의 장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3.1.3. 용법C : 대상을 해석·이해한다

(15) 株価の上がり下がりは会社ごとにバラバラで、例えば業績が良くなりそうなら値上がりするし、悪くなりそうだと値下がりする。でも、たくさんの会社の株価の平均を取ってみたら、企業活動全体の好不調を知る目安になるだろう、という考え方だ。景気の「ものさし」だね。 <朝日 09.04.29>

(16) こういう人たちは、あちこちに大きな病院を作ったり大学に研究所を寄付したりしています。また難民救済基金を作ったりしています。多分これで資産の大部分は使ってしまうのでしょう。これを偽善と取るか、真心と取るか、はその人しだいですが。 <国研>

(17) 誰のご機嫌を取ったものが勝者となるのか。 <美女:62>

(15)~(17)의 대상은 외부의 정보로써, 구체적 대상은 아니지만 물체로 간주한다면 주체의 제어 가능 영역으로 이동하여, 획득하는 것에 초점이 놓여 図8과 같은 이미지 도식이 된다. 이 때 주체는 착점에서 획득한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

1.3.1.4. 용법D : 대상을 선택하여 이동시킨다

(18) 勤めていることで得る収入を失うのは、ちょっと残念だったが、夫の言葉が後押しをして、彼女は環境の変化のほうを取ったのである。 <働く女:202>

(19) 店の名前はママの名前を一文字取って、『ヒロ』と言う。 <国研>

(20) 書名は「いぬのおまわりさん」。ブログのタイトルと同じで、長女の好きな童謡から取った。 <朝日 09.09.03>

주체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 주체의 제어 가능 영역으로 이동하여, 넓게는 「획득」의 의미를 가지며, 둘 이상의 것 중 하나의 대상이 선택되어 주체의 제어 가능 영역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1.3.1.5. 용법E : 대상을 카피한다

(21) 長津はようやく顔を上げ、ふたたび膝の写真を取った。 <国研>

(22) ボールペンと紙を用意し、彼女が発声するとおりにメモを取った。
<100回:126>

(23) でも…。もし本当に心中しようとしてる男女がいたとしたら、ビデオにとるより、心中をやめさせるのが先よ。 <天使:90>

주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주체의 제어 가능 영역에서 그대로 만들어 내는 용법이다. (22)와 같이 음성이 글로써 만들어 질 수도 있다. 그 대상(물체(21), 음성(22), 상황(23))이 실제로 주체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주체의 심리적 이동으로 인해 대상의 이동과 착점에 초점이 있고, 「획득」의 면에서 다룰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착점에만 초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과정을 살펴본다면, 기점, 심리적 이동, 착점 모두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図8과 같은 이미지 도식이 된다.

1.3.2. 「とる」의 이미지Ⅱ

(24) この会の主催者は、乾杯の音頭を取っただけで、その存在すら忘れられてしまっていたかのように、崇の隣で一人、ただ黙々と、アルコールを摂取してい

たのだ。 <国研>

(25) 身を乗り出し、唄いながら、ときどきハンドルを叩いてリズムをとっている。
<家族:83>

(26) 吉井の築いた鉄道網をさらに上積みした奈良原は、順風満帆の中で八年にもわたって経営の舵を取った。 <国研>

(27) 寮の食堂に共に相ならんで箸を取った、寮のひとびとよ。 <国研>

(28) 役所広司さん、佐藤浩市さん、安田成美さんらが出演、「北の国から」の杉田成道監督がメガホンを取る。 <朝日 09.11.04>

(24)～(28)은 대상(音頭, リズム, 舵, 箸, メガホン)이 주체의 제어 영역에서 제어, 조작 등과 같이 대상을 컨트롤 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용법이다. 즉, 기점과 이동에는 의식이 가지 않게 되고 착점에만 초점이 놓여 이동 후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용법으로, 図11과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진다.

이 용법을 용법F(대상을 컨트롤한다)로 하기로 한다.

이 용법의 이미지 도식은 구체적 대상이든, 추상적 대상이든, 기점과 이동이 배경으로 된다는 점 즉, 착점에만 초점이 놓인다는 점에서 「획득」의 이미지Ⅰ의 도식들과 구분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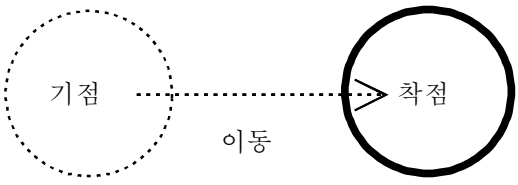


図11 「とる」의 이미지 도식2

(24)(25)의 대상(音頭, リズム)은 어느 영역에서 이탈하여 이동해 오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도 인지적으로는 어느 영역에서 이동하여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점과 이동을 배경으로 둘 수 있다.

한 편, (27)(28)의 대상(箸, メガホン)과 같이 기점에서 이탈하여 착점으로 실제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는 이미 주체가 의식 밖에 둔 것으로 배경화 되어 버린다.

따라서, 넓게는 「획득」의 의미면에서 다루지만, 기점과 이동이 배경화 되고, 착점만이 초점화 되어, 착점에 이동 후의 사건이 중요시 된다.

(26)과 같이 대상(舵)이 어느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심리적 이동이 배경화 되어 있어, 주체(奈良原)가 경영의 키(舵)를 잡고 조종하는 의미를 가진다.

1.3.3. 「とる」의 이미지Ⅲ

(29) つぎに、背のほうから中骨の両脇に沿って胴体の三分の一ぐらいの深さまで切り込みを入れ、頭の部分を残して中骨を取り除きます。両面の皮も剥ぎます。これで背と腹の両方が開いた鱶ができました。内臓を取ったあとの腹の部分は、このあとで詰め物をたっぷりと詰めるので、すこし切り込んでおくとよいそうです。 <国研>

(30) 上に足を踏み入れた新賞金王はギャラリーの大歓声に帽子を取って笑顔で応えた。<朝日 09.12.06>

(31) 子どもが家を離れた後に、 2 部屋の間の壁を取って広い空間にしたり、逆に壁を設けて部屋数を増やしたりと、結構こまめに、時には大胆に間取りを変えている。 <朝日 09.11.07>

(32) 顔の造作をひとつひとつ見比べると、驚くほど似ていた。特に、美弥が強調している目と鼻は、そっくり同じ形をしている。化粧を取ると、もっと似ているかもしれない。 <国研>

(33) この日、同県尾道市で、汚れを取り、白く輝く双胴の船体の除幕式があった。 <朝日 09.12.17>

(34) 最初は豚肉の臭みを取るためです。 <朝日 05.12.06>

(29)～(34)에서 대상(内臓, 帽子, 壁, 化粧, 汚れ, 臭み)은 원래 있던 영역(기점)에서 이탈하여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기점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 곳이 초점화 됨으로써, 대상 제거[4]를 나타낸다.

결과만을 본다면 기점만이 초점화 되지만, 대상이 이탈하여 이동해 가는 과정 또한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이동의 일부도 초점화 된다. 제거된 후의 대상과 착점은 (29)～(31)의 경우 실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주체의 의식 밖에 있기 때문에 착점은 배경화 되어, 図12와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진다.

이 용법을 용법G(대상을 제거한다)로 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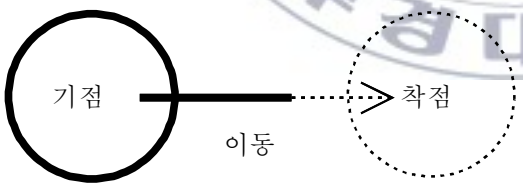


図12 「とる」의 이미지 도식3

4) さあ、おいで。そこにあるおまえの帽子をとって。それ、よくはないけど、まあいまはそれでいいからかぶって、早くでかけよう。 <http://fukimaru.web.fc2.com/etude/heidi.html>

위의 예는, (30)과 같은 대상(帽子)을 가지지만, 이 경우의 동사 「とる」는 이동과 착점에 초점이 놓이게 되어 대상 획득을 나타낸다. 인지적 초점에 따라 상반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2. 복합동사 「Vとる」에 대해서

후항동사 「とる」를 姫野(1999:25)는 후항동사 중 어휘수가 상위20위인 어휘적복합동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복합동사의 의미면에서 분류법을 제시(姫野(1999:20))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분류법에 복합동사를 대입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곤란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학습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코어도식론에 의거하여 전항동사와 후항동사의 이미지 도식의 결합과 초점화를 통해 복합동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2.1. 복합동사 「Vとる」의 어휘수

「とる」를 후항으로 하는 동사의 어휘 수는 『逆引き広辞苑第五版対応』(이하『逆引き広辞苑』)에 의하면 총61語이다.[5] 『逆引き広辞苑』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新明解日語辞典第五版』(이하『新明解』)와 『大辞林』에서도 조사하였다.

	逆引き広辞苑	新明解	大辞林
1	言ひ取る		
2	生け捕る		○
3	受け取る	○	○
4	打ち取る	○	○
5	写し取る	○	○
6	奪い取る		○
7	選び取る	○	○
8	選り取る		○

5) 본고는 「選び取る」「選り取る」와 같이 의미는 같지만 읽기가 다른 어휘를 각각의 어휘로 하겠다. 또한, 「동사연용형+取る」형태의 복합동사 중, 「飾り取る」「涼み取る」가 있었는데, 각각 「飾りを取る」「涼みを取る」로 풀이 되므로, 「飾り」「涼み」는 명사화된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9	押し取る		
10	脅し取る	○(威し取る)	
11	思ひ取る		○
12	買い取る	○	○
13	書き取る	○	○
14	嗅ぎ取る	○	○
15	掠め取る	○	○
16	語らひ取る		○
17	勝ち取る	○	○
18	搦め捕る	○	○
19	刈り取る	○	○
20	感じ取る	○	○
21	聞き取る	○	○
22	切り取る	○	○
23	汲み取る	○	○
24	搾り取る · 絞り取る		○
25	吸い取る	○	○
26	梳き取る		
27	せぶり取る		
28	攻め取る		○
29	削ぎ取る · 殺ぎ取る	○	○
30	抱き取る	○	○
31	尋ね取る		
32	掴み取る		○
33	伝へ取る		
34	撮み取る		○
35	摘み取る		○
36	習い取る		
37	縫い取る		○
38	抜き取る	○	○
39	拭い取る		○
40	盗み取る		○
41	捻じ取る · 捩じ取る		○
42	ねだり取る		
43	寝取る	○	○
44	乗り取る		○
45	奪ひ取る		○
46	剥ぎ取る	○	○
47	引き取る	○	○
48	弾きとる		
49	拭き取る		○
50	巻き取る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51	待ち取る		○
52	見取る	○	○
53	迎え取る	○	○
54	毟り取る	○	○
55	召し取る		○
56	召し捕る	○	○
57	申し取る		
58	もがりとる		○
59	もぎ取る	○	○
60	呼び取る		○
61	読み取る	○	○

위의 표를 살펴보면, 『逆引き広辞苑』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新明解』 또는 『大辞林』에는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있다. 石井(1988a:34)는 사전의 복합어 등록경향에 대해, 구성요소로 전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각종 일본어 사전의 복합어 등록 방침에 의하면,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등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2.2. 복합동사 「Vとる」의 코어도식 가설

동사 「とる」를 후항으로 하는 복합동사의 전항과 후항의 의미관계를 주목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脅し取る」「攻め取る」등과 같이 전항동사 자체에는 본동사 「とる」가 가지는 의미(획득, 제거)가 나타나지 않지만, 「とる」가 접속함으로써 본동사의 의미가 나타나는 용법이다.

두 번째 유형은 「受け取る」「抜き取る」와 같이 전항에 이미 「획득」이나 「제거」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거기에 「とる」가 접속하여 본동사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전항에 의미(완전히·제대로·확실히·직접V1[6]하다)를 더하는 용법이다.

본고는, 복합동사 「Vとる」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용법을 기초적으로 깔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합동사 「Vとる」의 모든 용법을 포함하는 도식, 즉 「Vとる」의 코어도식을 図13과 같이 가설하였다.

본동사 「とる」의 코어도식에 전항과의 관계로 인해 생기는 영역을 설정한 것으로, 각 요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역A는 대상이 원래 있던 장소(영역)를 나타낸다.

② 영역B는 행위주체가 대상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7]을 나타내는 어떠한 영역을 나타낸다. 어떠한 영역이란 그것이 구체적 영역일 수도 있고, 추상적 영역일 수도 있다. 이 영역은 전항동사에 의한 영역으로, 전항이 동사 「とる」의 의미를 얼마나 함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③ 영역C는 행위주체가 대상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다. 동사

---

6) 「V1」은 전항동사를, 「V2」는 후항동사를 말한다.

7) 「가능성을 나타내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상의 제어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とる」에 의한 영역이 된다.

④ 이동α, β는 각각 영역B와 영역C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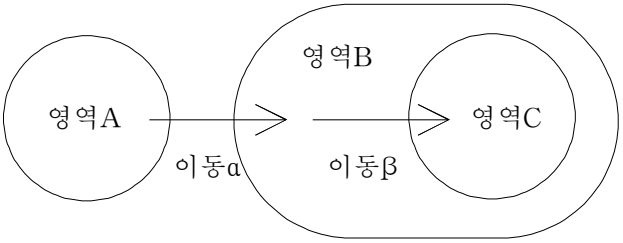


図13 「Vとる」의 코어도식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2.3. 복합동사 「Vとる」의 이미지 분류

복합동사는 전항동사와 후항동사의 형식적, 의미적 관계에 의해 그 결과가 생긴다.

전항동사와의 의미적 관계에서,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합동사 「Vとる」의 의미 이해가 쉽지만,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는 경우는 전항동사가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와의 뉘앙스 차이를 일본어 모어 화자의 직관을 가지지 않은 자는 제대로 알고 쓰기 어렵다.

따라서,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크게 분류하여, 복합동사 「Vとる」의 이미지 도식을 제시하고, 각 이미지 도식에 본동사 「とる」의 용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전항동사와는 어떠한 의미적 관계로 결합하고 있는 살펴보겠다.

2.3.1.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 유형

이 유형의 전항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본동사 「とる」의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사들이다. 이 경우 본동사 「とる」가 가지고 있는 이동성과 「획득」 혹은 「제거」의 의미가 더해져 이 복합동사의 결과를 만드는데, 그 결과 복합동사 「Vとる」는 「획득」의 이미지와 「제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즉, 두 동사가 결합하여 「획득」 혹은 「제거」의 의미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동사 「とる」와 마찬가지로 각 이미지를 도식화한 것을 이미지 도식이라고 하겠다.

비교 사전 중 『逆引き広辞苑』에만 등록되어 있는 어휘의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해 있었다. 이는 石井(1988a:34)의 사전의 복합어 등록 경향에 의

하면, 전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동사이거나,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세 개의 사전으로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3.1.1. 「획득」의 이미지 I

「획득」의 이미지 I 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 전항동사에 「とる」가 접속함으로써, 복합동사 「Vとる」가 「획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攻め取る」「脅し取る」「選び取る」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35) しかし道潅は囲みを解かず城中の形勢を観ていたが、その降参は偽であることが歴然としたので、二十八日再度攻撃、外城を攻め取った。<国研>

(36) 起訴内容によると、少年2人は5～6月、大阪市生野区や大阪府東大阪市の路上で、通行人4人の顔を殴るなどしてけがをさせ、現金計約2万5千円やデジタルカメラなどを奪ったほか、4～6月には通行人7人から計約20万円を脅し取るなどしたとされる。 <朝日 09.12.17>

(37) 「そうだ、リンゴでも食べるか？」
立ち上がると果物屋の紙袋から、おいしそうなリンゴをひとつ、えらび取った。
<国研>

(35)～(37)의 전항동사(攻める, 脅す, 選ぶ)는 주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대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알 수 없다. 대상(外城, 20万円, リンゴ)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고르는 행위만으로는 대상의 실질적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대상이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지 주체의 주관적 해석에 좌우된다. 실제로 대상은 정지해 있고, 그것을 인지하는 주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며, 주체 자신의 움직임은 의식하지 않게 된다.

그런 점에서, (35)~(37)의 대상(外城, 20万円, リンゴ)은 전항동사의 단계에서 위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행위가 발생하는 곳은 주체가 대상에 대한 제어 가능성을 가지는 영역(영역B)이므로, 대상의 영역B로의 심리적 이동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본다. 그 이미지 도식은 図14와 같다.

거기에 「とる」가 접속함으로써 대상(外城, 20万円, リンゴ)은 주체(道潅, 少年 2 人, 동작주)가 제어 가능한 영역(영역C)으로 이동하게 되어, 대상의 획득이 이루어지고 초점이 놓인다.

이 때, 영역C에서 대상 획득의 의미가 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는 의미로 발전한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B(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図14와 본동사 「とる」의 이미지 도식인 図8의 결합이 된다.

전항동사(攻める, 脅す, 選ぶ)에 의한 이동α와 영역B는 배경화(점선) 되고, 획득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동β와 영역C에 초점(두꺼운 선)이 있는 図15와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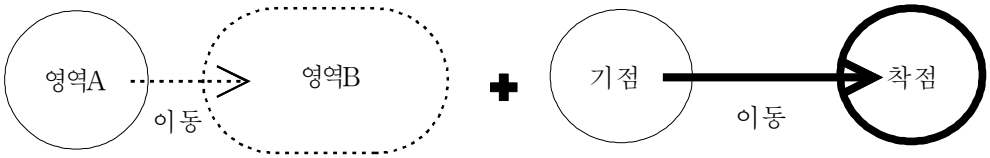


図14　　図8 「とる」의 이미지 도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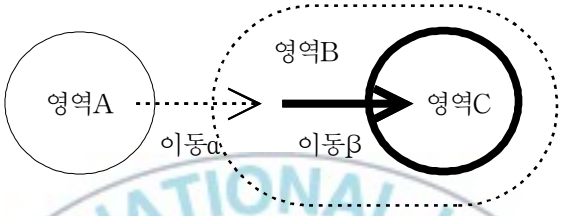


図15 「Vとる」의 이미지 도식1

「選び取る」「脅し取る」「攻め取る」외에 図15와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지는 복합동사는 「生け捕る」「押し取る」「語らひ取る」「からめ取る」「せびり取る」「縫い取る」등이 있다.

●もともとは大型獣を狩るために作出されたのだが、獲物に怪我をさせずに生け捕る事が出来るため、番犬とガードドッグとして使われる事になり、敷地に入ってきた泥棒や逃げ出した奴隷を無傷で生け捕りにした。<http://ja.wikipedia.org/wiki/>

●そして義親はこの出雲国でふたたび乱暴を働き、出雲の目代[もくだい]を殺害し、官物を押し取るという有様であった(『中右記』)。
<http://www.ne.jp/asahi/kibono/sumika/kibo/note/nob/seiwagenji.htm>

●みづからも、このいゑの二郎を語らひ取りて、うち連れて来たり。
<http://www.genji.co.jp/iwanami/iwe22.htm>

●鎖の先には鉄の玉もついておる。これをまわして、相手の太刀も槍もからめ取るのじゃよ。しかるのち、おもむろに鎌にてとどめを刺す。<国研>

●しきりに駕籠を揺すり、あげくの果ては自ら駕籠から転げ落ち、駕籠の担ぎ方が悪い、無礼であると、助郷で徴発された人足の百姓らに難癖をつけ、なだめに入った村役人から何がしかの金銭をせびり取った。これを「駕籠落ち」という。<国研>

●裏布が赤の木綿地に金糸で家紋を縫い取る。
<http://www.city.yatsushiro.kumamoto.jp>

●ハッチは薬屋に立寄って娘からお小遣いをねだり取るという調子だった。
<http://movie.goo.ne.jp/movies/PMVWKPD4413/story.html>

●マフィアの世界では組織のメンバーの女を寝取ることは厳禁である。
<http://ja.wikipedia.org/wiki/>

●まず、カメラから取り出したフィルムのパトローネを外し、中のフィルムをリールに巻き取る。クリエイティブ社では、フィルムを現像するのに、ドイツ製の自動現像機を使っていた。 <国研>

●源氏は少女を、実の父が引き取る前に、二条院に迎え取る。<国研>

●そして、ブッシュ・ブレア・小泉のイラク戦争の「戦犯」を網で「召し取る」パフォーマンス。
<http://simoiti1329.web.infoseek.co.jp/pead124/124-6.4.1.11kurekoudou51-60.htm>

●パラメータが正しい場合は、それをコンソールに表示して、センサ信号を呼び取る『sensAD(ch)』を起動します。
<http://homepage3.nifty.com/sashinkan/ELECTTRON/P03/P03MAIN.html>

2.3.1.2. 「제거」의 이미지 I

「제거」의 이미지 I 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 전항동사에 「とる」가 접속함으로써, 복합동사 「Vとる」가 「제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梳き取る」「打ち取る」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38) シラミを完全に除去するためにはシラミを殺傷するトリートメントでシラミを殺すか、シラミを機械的に取り除き卵を梳き取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https://www.456.com/print/11301/>

(39) 2年生エースの岩本輝（あきら）投手が最後の打者を打ち取ると、三塁側アルプス席は大興奮に包まれた。 <毎日 09.11.29>

(38)(39)의 「梳き取る」「打ち取る」는 전항동사(梳く, 打つ)가 나타내는 동작이, 대상(シラミ, 打者)이 원래 존재했던 영역A에서의 이탈 혹은 제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동작은 대상에 대해 제어 가능성이 있는 영역B에서 이루어지므로, 심리적 이동을 배경으로 둔, 앞서 제시한 図14와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진다. 후항동사 「とる」에 의해 비로소 이탈이 나타나고, 영역A와 이동α에 가장 초점이 놓여 図16과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지며, 「제거」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G(대상을 제거한다)가 작용한 것으로, 図12와 図14의 결합의 결과이다. 이 때, 배경이 되는 영역B와 영역C는 주체의 의식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39)의 대상(打者)에 대한 제거의 의미는 상대팀 선수인 대상(打者)이 공을 쳐서 득점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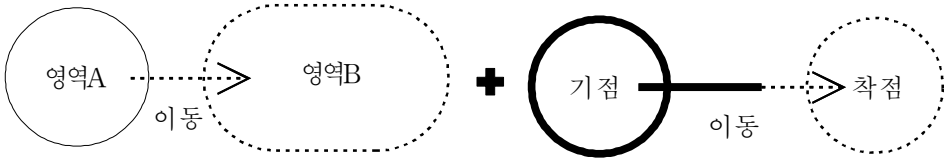


図14

図12 「とる」의 이미지 도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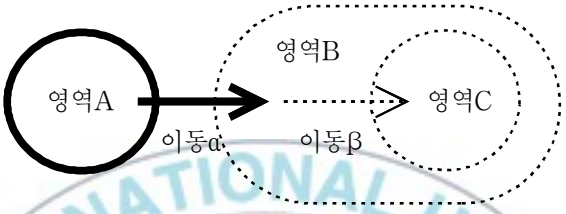


図16 「Vとる」의 이미지 도식2

2.3.2.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는 유형

본동사 「とる」의 의미는 크게 「획득」과 「제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본고는 복합동사 「Vとる」의 전항동사가 「획득」의 의미면을 가진 경우, 이동의 배경화 여부에 따라 「掴む」「受ける」를 대표 예로 들고 있는데, 획득의 의미를 가지지만 이동의 배경화 여부에 따라 다른 이미지 도식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박수경(2006:18)은 자신측으로 대상을 이동시킨다는 의미를 「とる」와 공통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사를 「預かる」「受ける」「買う」「借りる」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항동사와의 의미 관계를 아는데 참고가 되리라 본다.

「획득」의 의미를 가지는 전항동사로, 대상의 성질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인식, 언어, 감정을 대상으로 하는 동사 「聞く」「読む」「感じる」등을 들 수 있는데, 「掴む」「受ける」와는 다른 이미지 도식을 가진다

고 본다.

한 편, 전항동사가 「제거」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는 「刈る」「抜く」「拭く」등을 들 수 있다.

이 동사들이 「とる」를 후항으로 한 「掴み取る」「受け取る」「聞き取る」「抜き取る」를 대상으로, 복합동사 「Vとる」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2.3.2.1. 「획득」의 이미지Ⅱ

「掴み取る」「勝ち取る」등과 같은 복합동사는 전항의 단계에서 대상이 주체의 영역B에서 의식된다. 원래 있던 영역A에서 이탈하여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전항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대상 획득의 의미를 가지므로 심리적 이동(이동α)이 배경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とる」가 접속하여 대상은 영역C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이동β와 영역C에 초점이 놓이고, 넓게는 「획득」의 의미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掴み取る」를 예로 들어, 전항동사 「掴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40) 助手席の左肩部分を掴んで乗るのがいいと思いますが、個人的にはもう少し、改善して欲しいと感じます。 <朝日 05.03.04>

(41) 今世紀初めのフェラーリ黄金期を身を挺して支えた大ベテランは、ホンダでの不遇の時代を経て、5年ぶりに勝利を掴んだ。 <朝日 09.08.25>

(42) この頃、夏に参加したコンサルティング企業のインターンシップに再度参加、実際に企業のコンサルティングプランを立てるという経験でコンサルティングの具体的な仕事内容を掴む。 <朝日 09.02.16>

(43) あの雪の夜、ふらりと入ったバーで、突如、激高された宗太郎様は、カウン

ターの奥から掴み取った包丁を振りかざし、私に迫ってまいりました。 <国研>

(44) 絶望的な状況からプロジェクトの成功をつかみ取った男たちの名言が心に染みてくるようだ。 <毎日 09.07.02>

(45) 力強い筆遣いで自由自在に題材の本質をつかみ取った。
<毎日 09.12.14>

(40)에서는 구체적 대상(助手席の左肩部分)을 주체가 감싸 쥐고 있는 동작을 나타낸다.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지만, 획득의 의미면에서 생각한다면, 심리적으로 대상의 영역B로의 이동이 배경화 되어 있다. (40)의 경우는 구체적 동작을 나타내며, 대상 획득의 의미도 나타나는데, 「掴む」의 이미지 도식은 図17과 같다.

(43)의 대상(包丁)은 영역A(カウンターの奥)에서 영역B를 거쳐 영역C로 이동한다. 이 때 전항동사의 단계는 (40)과 같이 영역B에서 획득의 의미를 가지지만, 구체적 동작에 더 초점이 있다. 그리고, 후항동사 「とる」에 의한 영역B에서 영역C로의 이동과 영역C에서의 대상의 획득에 초점이 놓인다. 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기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A(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긴다)가 작용한 것이다.

여기서 영역B와 영역C에서 모두 획득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영역B(제어 가능성이 있는 영역)와 영역C(제어 가능한 영역)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역C에서 의미가 더 강해진다.

「掴み取る」의 이미지 도식 図18[8]은 「掴む」의 이미지 도식 図17과 「とる」의 이미지 도식 図8이 결합한 결과이다.

---

8) 대상의 이동전의 존재 영역을 나타내는 동사 「とる」의 「기점」이 복합동사 「Vとる」에서는 영역A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복합동사 「Vとる」가 「획득」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항동사가 「획득」의 의미를 함의하는 경우, 대상이 이동하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복합동사 「Vとる」도식의 영역B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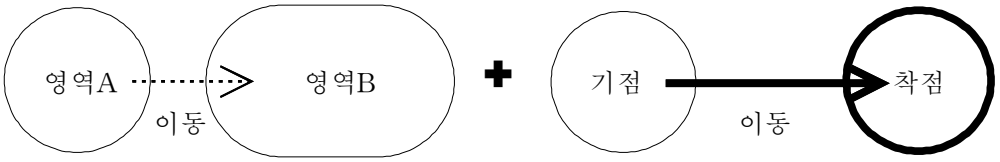


図17 「掴む」의 이미지 도식　　図8 「とる」의 이미지 도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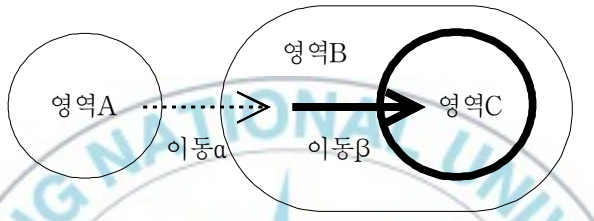


図18 「Vとる」의 이미지 도식3

(41)의 대상(勝利)은 추상적 대상이므로, (40)과 같이 주체의 구체적 동작은 나타나지 않지만, 영역B에서 대상 획득의 의미를 지니며, 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는 의미까지 나타난다.

(44)의 대상(成功) 또한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41)과 마찬가지로 영역B에서 내 것으로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항동사 「とる」에 의해 영역C로 이동함으로써 대상을 완전히 주체의 것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44)와 같은 경우의 후항동사 「とる」는 전항동사의 행위에 「완전히 V1하다」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적 기능[9]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본동사

9) 斎藤(1985:32-33)는 복합동사 후항의 접사성에 대해, 통사론적 시점과 어휘론적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항동사와의 의미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론적 시점에서 후항동사 「とる」의 접사성을 고찰한다. 斎藤의 어휘론적 시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ここで語彙論的視点と呼んだのは、後項の接辞性の判定を、(イ)前項の意味との関係、(ロ)単独用法の意味との関係、といった二つの側面に基づいて行うもので、その場合、(イ)'前項の意味との重なりが多い程、(ロ)'単独用法の意味との重なりが少ない程、接辞性が高いと判定され

「とる」의 용법B(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영역C는 대상을 내 것으로 하려는 주체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42)는 대상(仕事内容)의 획득이 「파악」의 의미까지 나타낸다. (45)또한 영역B에서 「파악」의 의미를 나타내며, 「とる」의 접속으로 영역C에서 대상(題材の本質)을 확실히 파악한다는 뜻으로, 이 또한 접미사적 기능을 가지며, 이것은 본동사 「とる」의 용법B(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44)(45)의 대상은 추상적 대상이므로 영역A는 배경화 된다. 대상의 추상도의 차이로 「掴み取る」의 이미지 도식은 図18 혹은 図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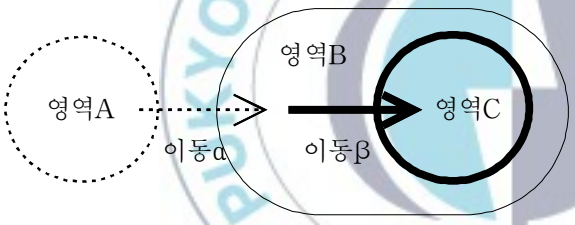


図19 「Vとる」의 이미지 도식3- i

「掴み取る」외에 이와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지는 동사는 「勝ち取る」「抱き取る」「撮み取る」「乗り取る」가 있다.

●わたくしは、今の配属部署と階級を実力で勝ち取った、という自負があります。<国研>

る。

이러한 어휘론적 시점에 따른다면, (43)에 비해 (44)(45)에서 후항동사 「とる」는 접사성이 강해진다.

●忍びの男は、時堯たちにかまわず、声を押し殺してすすり泣いた。思わず、夢中で、時堯もその女を抱き取った。<国研>

●宝探しみたい。はぜているのをそっと踏み、火箸で実をつまみ取る。<朝日08.10.13>

●大将成政悦んで一時に城を乗り取ること、抜群の働きぞと、かちどきあげて、それよりも陣所々々を引払い行列美々しく諸軍勢、熊府の城へと引きかえす。
<http://www.edu-project.com/wani.htm>

2.3.2.2. 「획득」의 이미지Ⅲ

「受け取る」「奪い取る」「買い取る」등의 전항동사는 자기쪽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영역B에서 대상 획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또 자기쪽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とる」가 접속한 형태가 「受け取る」「奪い取る」등과 같은 복합동사이다.

영역B로의 이동α가 인지 주체의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획득」의 이미지Ⅱ와는 다른 이미지 도식을 가질 것이라 본다.

전항동사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와 동사 「とる」가 접속한 경우의 의미 차이는 영역A에서 영역B까지의 이동만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영역B에서 영역C로의 이동이 한 번 더 일어나는가에 의해서 생긴다.

동사 「受ける」와 「受け取る」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46) 表彰式で銅メダルを受けると、それまでの笑顔が消え涙がこみ上げた。
<朝日 10.02.27>

(47) お店でパソコンソフトを買う代わりに、ネットワークでサービスを受ける、という発想だ。 <朝日 09.12.02>

(48) 隕石は落ちるとまず雪に埋もれ、その後、氷の中に閉じこめられる。その氷が

流れて山にぶつかり、日差しや風を受けて昇華することで、隕石が顔を出す。 <朝日 10.01.08>

(49) 銭湯の入口でタオルを一本受け取って、男湯と女湯に別れた。 <家族:58>

(50) 彼女は母親から、お茶と茶菓子を載せたお盆を受け取った。 <100回:141>

(51) 普通の人はなかなか理解しませんが、アメリカが現金を海外に出しているときは、印刷費用と紙代しかかからない。それでさまざまな財貨とかサービスを受け取って、そのドル紙幣が国内に帰って来るまでは何をしても払わなくていいんです。 <国研>

(52) そして、企業の経営というのは、よくアメリカのCEOなんかもてはやされて、そこでどんどんリストラをやって企業経営をやっていく、そして膨大な利益をCEOが受け取る、このような形がもてはやされているような風潮があります。 <国研>

(46)～(48)의 대상(銅メダル, サービス, 日差しや風)은 추상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영역B로의 이동을 나타내어 대상 획득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사 「受ける」는 대상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에 더 초점이 있는 것으로, 착점이 어느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48)에서 그 이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受ける」의 이미지 도식은 図20과 같다.

(49)(50)은 주체가 영역B로 이동해 오는 대상(タオル, お盆)을 영역C로 이동시키는데, 이 때 영역B보다 이동α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영역B에서의 대상 획득의 의미보다 영역C에서의 획득의 의미가 더 확실해진다.

특히, 이동 대상이 (49)(50)과 같이 구체적 대상인 경우, 전항동사 「受ける」를 단독으로 쓰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에서도 영역B에서의 대상획득의 의미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50)은 「직접, 제대로 V1하다」로 해석이 되어, 후항동사 「とる」는

접미사적 기능을 가지며, 대상을 제어 가능한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초점이 있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A(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긴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51)(52)는 (47)과 같이 대상(サービス) 획득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財貨とかサービス, 利益)의 영역C로의 이동으로 내 것으로 한다는 의미까지 지닌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B(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49)(50)과 달리, 영역C에서 「획득하다」의 의미에서 「내 것으로 한다」는 의미로의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접미사적 성질은 아주 약하다고 본다.

「受け取る」의 이미지 도식은 図20과 図8의 결합으로 図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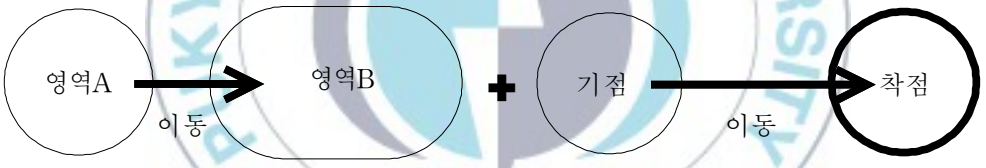


図20 「受ける」의 이미지 도식

図8 「とる」의 이미지 도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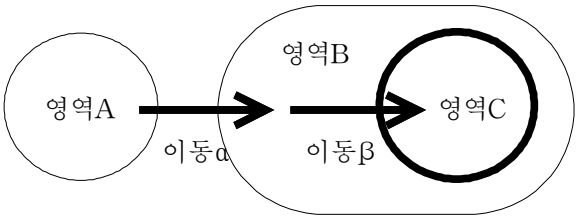


図21 「Vとる」의 이미지 도식4

(53) 「首相の経済政策に批判を強める自民党橋本派と、それに“共同歩調”をとる

公明党の分断を図ろうというねらいがあるのではないか」しかし、冬柴らは、小泉首相の言葉を素直に受け取った。<国研>

(54) 変な質問になるかもしれないですが、男の人って、冗談を本気で受け取ってしまう女の人のことを、どう思いますか？<国研>

(55) とにかくまずはしっかり現状を受け入れ、理解する。 <100回:130>

(53)(54)는 영역B에서는 대상(言葉, 冗談) 획득을 나타내고, 영역C로의 이동으로 대상을 해석·이해함을 나타낸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C(대상을 해석·이해한다)가 작용한 것이다. 이 또한, 영역C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이다.

(55)의 「受け入れる」는 「とる」의 내부이동이 「해석·이해」의 의미를 지니는 영역C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확실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入れる」 또한 내부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55)에서는 「해석·이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理解する」라는 동사가 이어서 나타난다. 따라서, 「V入れる」의 이미지 도식은 図22와 같이 영역C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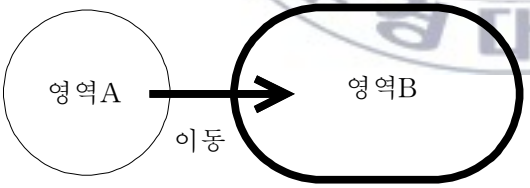


図22 「V入れる」의 이미지 도식

「受け取る」와 같이 전항동사가 「획득」의 의미를 가지고, 이동α, 이동β, 영역C에 초점이 있는 복합동사로는 「奪い取る」「買い取る」「掠め取る」「汲み取る」「吸い取る」「習い取る」「盗み取る」「引き取る」「もぎ取る」가 있다.

●鈴木が木村に返したハンカチを、富岡はうむを言わせず彼の手から奪い取った。<国研>

●一八九八年にアメリカとスペインとの間に行われた戦争の後で、アメリカはフィリピンをスペインから買い取った。<国研>

●わかったよ、その雑誌は総会屋が企業から援助金を掠めとるために名目的に出している雑誌なんだよ。<国研>

●テモテはある初歩的な教えをパウロから受け取ってから、パウロが訪れたあの泉の所へ自分でも行き、自分でもそこから水を汲み取る。<国研>

●60年代になって、その桜に危機が訪れた。細い枝が鳥の巣のように伸び、栄養分を吸い取って正常な木まで衰弱させる「テングス病」で枯れ始めたからだ。<朝日 03.03.18>

●赤ちゃんが、主語・述語、動詞・名詞などと格別に文法を学ぶことなしに母語を身に付けることができるのは、身の回りの家族、とりわけ母親の言葉をまねて学び、それを繰り返すうちに慣れて習い取るからである。<http://www.sankei.co.jp/seiron/editoria/0805/0505editoria-1.html>

●目屋 · 畳平の木こりが山菜を採りに山に入ったところ、猿が来て昼食を盗み取って逃げていった。<朝日 09.06.12>

●そのときにはもうお腹にあの人がいたんで、生まれた子は鳥取の家で引き取って、お母さんはその後また別の家に嫁いだんだそうです。<国研>

●アフサンは木のかたわらにしゃがみこんで、きのこをひとつもぎ取った。<国研>

2.3.2.3. 「획득」의 이미지Ⅳ

「聞き取る」「読み取る」「感じ取る」등의 전항동사는 인간의 인식, 언어, 감정을 대상으로 하는 동사이다.

동사 「聞く」와 「聞き取る」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聞く」는 언어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실제 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언어적 정보를 물체로 간주한다면, 정보가 제공되는 곳인 영역A에서 영역B로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로 인해, 대상(정보) 획득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영역C로 이동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聞き取る」이다.

(56) 美術関係の仕事をつづけてきたある友人から聞いた話だ。 <ことば:205>
(57) ことばは心の栄養剤。これからも、いいことばをたくさん聞いて、「自分のことば」を育て、もう少しマシな「私」にな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る。 <ことば:5>
(58) 歯が三本しか残っていないようだったが、話が聞き取れ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 <女学生:58>
(59) 監督は多くの労働者から聞き取ったデータを元にフィクションの人物 4 人を登場させる。 <毎日 09.03.14>

(56)(57)은 대상(話, ことば)이 영역B로 이동함으로써 「획득」의 의미를 지닌다. 「획득」의 의미를 가지더라도, 図23과 같이 어느 한 부분(이동 또는 영역B)이 초점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강하지 않다.

(58)(59)는 영역B에서 영역C로의 이동이 확실한 획득을 나타내지만, 본동사 「とる」의 용법이 달리 작용하였다.

(58)에서는 영역B에서의 대상(話) 획득의 의미가 영역C로 이동하면서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의미까지 나타난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C(대상을 해석·이해한다)가 작용한 것이다. 전항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접미사적 기능은 아주 약하고, 본동사의 용법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한편, (59)에서도 영역B에서 영역C로의 대상(データ)의 이동이 「획득」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후항동사 「とる」의 접미사적 성질이 강하게 나

타나 「확실히, 자세히 V1하다」로 뜻풀이 된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B(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가 작용한 것이라 본다. 「聞き取る」의 이미지 도식은 図23과 본동사 「とる」의 図8의 결합으로 図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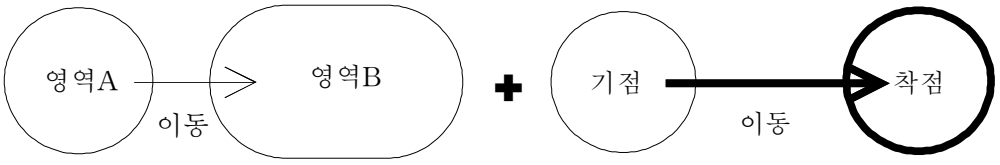


図23 「聞く」의 이미지 도식　　図8 「とる」의 이미지 도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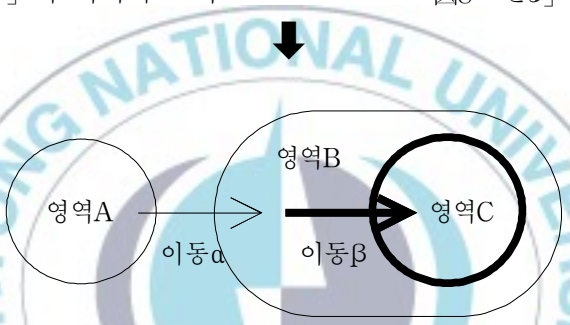


図24 「Vとる」의 이미지 도식5

図24와 같은 도식을 가지는 복합동사로는 「嗅ぎ取る」「書き取る」「感じ取る」「見取る」「読み取る」가 있다.

●毎日決まった時刻に店に来る業者だそうだが、なんとなくおれはそこに作為の臭いを嗅ぎ取った。<国研>

●「身長は百六十五センチぐらい。中肉中背。年齢は五十歳前後。色黒。細い指をしている。右顎に直径十ミリのホクロ」秦野は機械のように特徴を並べ、係長はそれを手帳に書き取った。<国研>

●つね日ごろフワフワのやわらかい布団に慣れていれば、ほんの少しの異物も、敏感に感

じ取ることができる。<ことば:35>

●上半身の角度一つから，内面の変化を見取る感性が求められます。
<http://www3.plala.or.jp/yokosan/irohauta.htm>

●附属品として手ぶれを起こさず印刷物を適切な距離から撮影するための固定台が製品パッケージに含まれており、これを利用することでA4サイズの印刷物を2回に分けて全文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朝日 09.12.17>

2.3.2.4. 「제거」의 이미지Ⅱ

「刈り取る」「抜き取る」「拭き取る」등의 전항동사(刈る, 抜く, 拭く)는 대상을 원래 있던 곳(영역A)에서 이탈시키는 동사이다. 인지적 초점에 의해 「제거」의 의미를 가지거나, 대상을 원래 있던 영역에서 이탈시켜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동작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에 동사 「とる」가 접속하여 「Vとる」는 「제거」의 의미를 결과적으로 나타낸다.

동사 「抜く」와 「抜き取る」를 예로 들어, 전항동사 「抜く」와의 어떠한 관계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다.

(60) 彼は水桶をとり井戸端で水を汲み、台所の水溜めを満し、庭を掃き雑草を抜く。 <国研>

(61) 大きく反り返ったところで口から大きく息を吐き、全身の力を抜く。 <国研>

(62) そこに、いつもは持ち歩かないパスポートが入っ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とホッとして、内ポケットから手を抜く。 <国研>

(63) ベルナジューは、こんなあいさつを二度もされて、引っこんでいるような男ではなかった。いきなり剣を抜くと、真っ向からダルタニャンに襲いかかって来た。
<国研>

(64) パイナップルの芯を抜き取るのに使用する。 <国研>

(65) 何かが刺さっているようだった。思い切って抜き取ると、あまりの痛みに体が震えた。 <朝日 09.10.12>

(66) イワシの頭を手でちぎりながら引っ張り、内臓を抜き取る。 <朝日 09.07.01>

(60)(61)은 대상(雑草, 力)이 영역A(庭, 全身)에서 이탈하여 이동해가는 것에 초점이 있고, 착점(영역B)은 배경화 되어, 「제거」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의 이미지 도식은 図25와 같다.

(62)(63)에서도 (60)(61)과 마찬가지로 대상(手, 剣)의 영역A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나지만, 영역B가 (60)(61)에서와 달리 배경화 되지 않는다. 대상의 이동에 초점이 놓이는 주체의 구체적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로써, 図26과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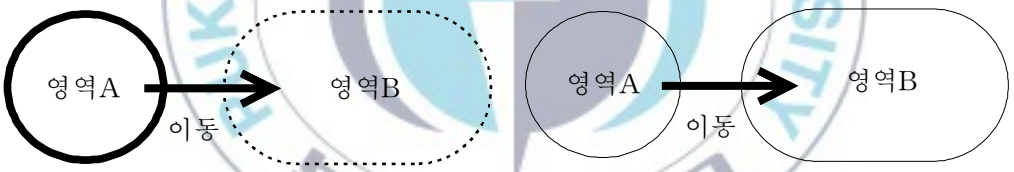


図25 「抜く」의 이미지 도식1　　図26 「抜く」의 이미지 도식2

(64)～(66)에서 대상(芯, 何か, 内臓)은 전항동사에 의해 영역A에서 영역B로의 이동α를 나타낸다. 이동이 초점화 되는 図26의 이미지 도식과 같고, 이와 동시에 후항동사 「とる」에 의해 영역C로의 이동β가 있지만 배경화 된다. 결국 영역A와 이동α에 초점이 있고, 「제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図27과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진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G(대상을 제거한다)가 작용한 것으로, 본동사 「とる」의 이미지 도식인 図12와 「抜く」의 이미지 도식인 図26이 결합한 결과이다.

森田(1989:823)는 「抜き取る」를 「획득」[10]의 의미로 분류하고 있지만, (64)~(66)와 같이 「제거」의 의미도 있음을 알았다. 이는 전항동사 「抜く」의 구체적 동작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본동사 「とる」의 용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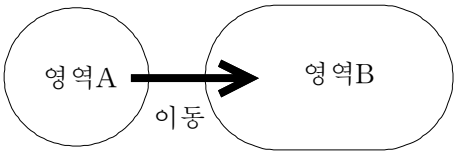


図26 「抜く」의 이미지 도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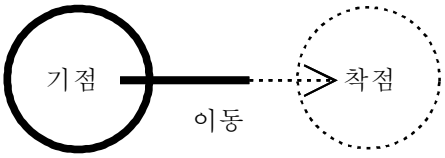


図12 「とる」의 이미지 도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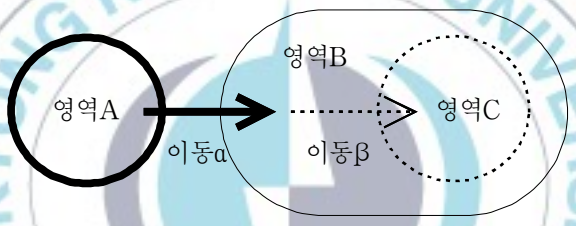


図27 「Vとる」의 이미지 도식6

10) (a) 「おいおいオヤジって感じ？」瞳はポケットティッシュを一枚抜き取って、唇のあいだにはさんで口紅を押さえた。 <女学生:37>
(b) ふたたび玄関に顔を向けたが出てくる気配はないので、深呼吸してポストから封筒を抜き取った。<女学生:144 >

(a), (b)는 대상(ポケットティッシュ, 封筒)이 영역A를 이탈하여 영역B로 이동하는 것은 (63)~(65)와 같지만, 영역C로의 이동이 배경화 되지 않기 때문에 「획득」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A(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긴다)가 작용하여 생긴 결과다. 図21과 같은 도식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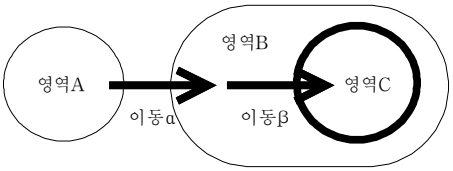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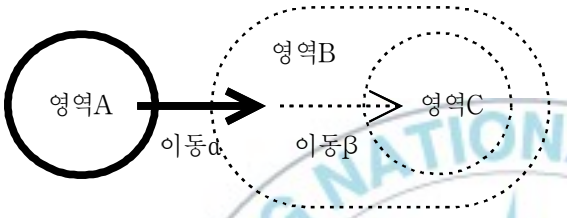


図21 「Vとる」의 이미지 도식4

결과적으로 「제거」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앞서 제시한 「梳き取る」의 이미지 도식(図16)과 다른 점은, 図16은 전항동사(梳く)의 동작에 의한 대상의 영역B로의 (심리적)이동을 배경(점선)으로 두고 있지만, 図27은 전항동사 「抜く」의 동작(図26)에 의해 대상이 영역B에서도 의식되고 있고 배경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f.) 図16

「抜き取る」외에 이와 같은 이미지 도식을 가지는 복합동사는 「刈り取る」「切り取る」「削ぎ取る」「摘み取る」「拭い取る」「剥ぎ取る」「拭き取る」「毟り取る」가 있다.

●さらに草薙の剣を抜いて近くの草を刈り取る。するともう自分の周りの草がなくなるから燃えてこないのである。<国研>

●道川トモさん(72)は、型から外した福助がある程度硬くなったところで、型の合わせ目からはみ出した粘土を小刀で切り取る。<朝日09.05.11>

●冬瓜は種とズ（綿のような部分）を取り除き、10cm×7cmの角切りにして、かたい皮をうすくそぎ取る。<国研>

●いいものを持っている選手の芽を摘み取ってしまうようでは、日本サッカーはダメになる。<朝日09.10.16>

●食べカスの骨などを生ゴミとして捨てたら、キッチンペーパーなどで食器の油汚れをできるだけ拭い取る。<国研>

●竹本和太郎は、机上の箱から葉巻を取り出し、セロファンを剥ぎ取った。<国研>

●近くで爆弾が炸裂しても、目の前のテーブルの汚れのほうが気になるとでもいうように、未菜はポケットティッシュを取り出して、章三が食べこぼした生姜焼きの汁を拭き取った。<女学生:67>

●苦笑を浮かべ、ブルクハルト大尉の顔をした男は、合成毛髪と人造皮膚をぺりぺりと音を立ててむしり取った。<国研>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3. 본동사 「とる」와 복합동사 「Vとる」의 의미 관계

이상으로,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크게 「획득」과 「제거」로 나눌 수 있었는데, 복합동사 「Vとる」의 결과도 크게 「획득」과 「제거」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는, 본동사 「とる」의 용법이 복합동사 「Vとる」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사 「とる」가 후항으로 쓰였을 때 특징적인 것은, 본동사의 용법을 가지면서 접미사적 용법으로도 쓰인다는 것이다.

본동사 「とる」의 후항에서의 쓰임과 복합동사 「Vとる」에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tr><th>본동사 「とる」</th><th>후항동사 「とる」</th><th>복합동사 「Vとる」</th></tr>
<tr><td rowspan="2">획득</td><td>획득</td><td rowspan="2">획득</td></tr>
<tr><td>접미사적 용법</td></tr>
<tr><td>제거</td><td>제거</td><td>제거</td></tr>
</table>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후항동사 「とる」의 접미사적 용법은 「획득」의 의미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획득」의 의미를 가지는 전항동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전항동사로 쓰일 때 의미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 「제거」의 의미와 구체적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とる」와 접속하면, 구체적 동작만이 전항동사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Vとる」의 「제거」의 의미는 후항동사 「とる」에 의한 결과가 된다.

본동사 「とる」의 의미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예로 든 전항동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획득」이나 「제거」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않는 동사 : 「選ぶ」「打つ」「脅す」「梳く」「攻める」

②「획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후항동사 「とる」에 의해 그 의미가 확실해 지는 동사 : 「受ける」「聞く」

③「획득」이나 「제거」의 의미를 가지거나, 그 의미를 가지더라도 구체적 행위에 초점이 있는 동사 : 「掴む」「抜く」

그리고, 각 동사에 「とる」가 접속하였을 경우, 복합동사 「Vとる」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 ①의 동사에 접속할 경우, 후항동사 「とる」는 본동사 「とる」의 의미 용법을 그대로 가진다.

(b) ②의 동사에 접속할 경우, 본동사 「とる」의 용법과 함께 접미사적 용법을 가지는데, 후항동사 「とる」에 의해 영역C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에는 접미사적 성질이 아주 약하다. (용례(51)~(54), (58))

(c) ③의 동사에 접속할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ⅰ. 전항동사가 의미를 강하게[11] 가지는 경우, 접미사적 성질이 강하다. (용례(44), (45))

ⅱ. 구체적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경우는 본동사 「とる」의 의미 용법을 그대로 가진다. (용례(43), (64)~(66))

(d) 접미사적 용법으로, 「확실히·자세히·직접…V1하다」로 뜻풀이 되는 것은 본동사 「とる」의 용법A(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긴다) 혹은 용법B(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가 작용한 것이다.

---

11) 전항동사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 의미 확장이 일어나며, 전항으로 쓰여도 확장된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후항동사 「とる」는 복합동사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접미사적 성질이 강하더라도 본동사 「とる」의 용법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본동사 「とる」의 용법B(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는 「내 것으로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접미사적 기능을 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Ⅲ. 결론

다의성을 가지는 복합동사 후항의 의미 습득에 대한 문제의 인식에서, 본고에서는 다의어 「とる」의 코어도식을 상정하여 초점의 변화에 따라, 7가지의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을 넓게는 「획득」과 「제거」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한 동사 「とる」가 복합동사의 후항으로 쓰였을 때, 본동사 「とる」의 용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Vとる」의 코어도식을 가설하여 초점화에 의한 도식의 변형으로 살펴보았다.

전항동사가 본동사의 의미를 얼마나 함의하는가에 따라 본동사의 용법이 그대로 쓰인 경우와 접미사적 용법과 본동사의 용법이 함께 쓰인 경우가 있었다.

코어도식의 변형에 의한 「Vとる」의 복수의 이미지 도식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영역C에 대한 부분이다.

인지적 초점에 의해 코어도식의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이미지 도식에서 영역C로의 이동(이동β, 영역C)은 「Vとる」의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초점화에 의해 영역C로의 이동이 배경이 되더라도 반드시 존재하는 부분으로, 특히, 접미사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영역C로의 이동(이동β, 영역C)은 대상을 나의(제어 가능) 영역으로 들여야겠다는 주체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는 전항동사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보다, 그러한 의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확실히·자세히·직접…V1하다」로 풀이되는 것이다.

영역C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부이동을 나타내는 「V入れる」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어도식을 이용한 의미 이해의 방법은 의미가 유사한 단어와의 의미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松田·白石(2006)는 「とり+V2」 형태의 조사를 통해 단순동사와 「とり+V2」의 의미 차이에 대해 일본어 비모어 화자는 그 개념 이미지가 모어 화자와 같이 확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모어 화자와 다른 직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한국어 개입에 의해 「取る＝受ける」와 같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어 모어 화자의 직관을 100%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한 복수의 이미지 도식이 일본어 모어 화자의 직관과 일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초점화라는 인지적 조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본어 모어 화자의 사이에서도 초점화의 정도가 100%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후, 지금까지 알아 본 본동사 「とる」와 복합동사 「Vとる」를 코어도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실험이 필요하지만, 코어도식을 이용한 의미 습득 방법은 다의어 또는 전항동사와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복합동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류>

박수경(2003b) 「動詞「とる」の意味分析」『日語日文学研究』47 韓国日語日文学会

박수경·조강희(2006) 「일본어 기본동사의 의미네트워크-동사「とる」의 의미네트워크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30 대한일어일문학회

石井正彦(1988a) 「辞書に載る複合動詞·載らない複合動詞」『日本語学』7-5 明治書院

————(1988b) 「接辞化の一類型—複合動詞後項の補助動詞化—」『方言研究年報』30 和泉書院

国広哲弥(1986) 「語義研究の問題点-多義語を中心に-」『日本語学』12 明治書院

————(1994) 「認知的多義論-現象素の提唱-」『言語研究』106 日本言語学会

————(1997) 『理想の国語辞典』大修館書店

斎藤倫明(1985) 「複合動詞後項の接辞化—「返す」の場合を対象として—」『国語学』140 日本語学会

武部良昭(1953) 「複合動詞における補助動詞的要素について」『金田一博士古稀記念言語民俗論叢』三省堂

田中茂範(1990) 『認知意味論：英語動詞の多義の構造』三友社出版

————(2004) 「基本語の意味のとらえ方—基本動詞におけるコア理論の有効性—」 『日本語教育』121 日本教育学会

新美和昭外(1995) 『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 例文・問題 シリーズ 4 』東洋文庫

姫野昌子(1999) 『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松田文子(2001)「コア図式を用いた複合動詞後項「～こむ」の認知意味論的説明」『日本語教育』111 日本語教育学会

————(2006)「コア図式を用いた多義動詞「とる」の認知意味論的説明」『日本語科学』19 国立国語研究所

松田文子・白石知代(2006)「コア図式を用いた複合動詞習得支援のための基礎研究「とり～」を事例として」『世界の日本語教育』16 国際交流基金日本語教育センター

山田進(1993)「語の形式と意味」『国語学』175 日本語学会

山梨正明(1995)『認知文法論』ひつじ書房

<사전류>

岩波書店辞書編集部編(1999)『逆引き広辞苑第五版対応』岩波書店

金田一京助外編(1997)『新明解日語辞典第五版』三省堂

新村出(1991)『広辞苑第四版』岩波書店

飛田良文編(2007)『日本語学研究事典』明治書院

松村明編(1988)『大辞林』三省堂

森田良行(1989)『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용례출전═

天使 ： 赤川次郎(1995)『天使のごとく軽やかに』角川文庫

100回 ： 中村航(2005)『100回泣くこと』小学館

美女 ： 遥洋子(2004)『美女の不幸』筑摩書房

働く女 ： 群ようこ(2002)『働く女』集英社

ことば ： 山根基世(2006)『ことばで「私」を育てる』講談社文庫

家族 ： 柳美里(1999)『家族シネマ』講談社

女学生: ＿＿＿(2002)『女学生の友』文芸春秋

国研 ： 国立国語研究所(2009)『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モニター公開データ

朝日 ： 朝日新聞（2003～2010）朝日新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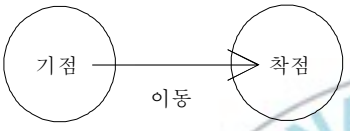
毎日 ： 毎日新聞（2009）毎日新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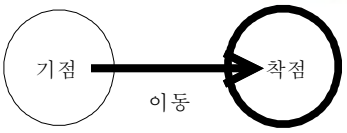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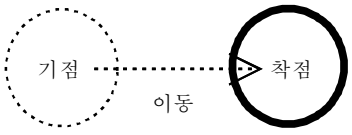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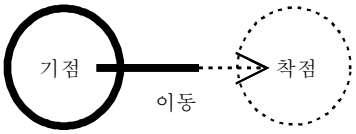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사 「とる」와 복합동사 「Vとる」의 코어도식을 비롯한 이미지 도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동사 「とる」

「とる」의 코어도식	
 「とる」의 코어도식	「とる」= 어느 영역(기점)에 존재하는 것을 주체가 제어 가능한 영역(착점)으로 옮기는 것.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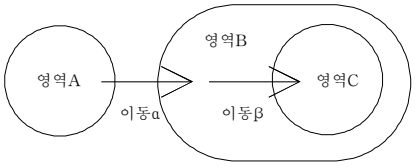
동사 「とる」의 도식	용례 및 설명
1.「とる」의 이미지 I	
 「とる」의 이미지 도식1	**용법A(대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옮긴다)** 僕らは懐中電灯と歯ブラシを交換した。僕はトガリバルブを手に取り、彼女は懐中電灯を支えた。<100回:55> - 대상을 제어 가능한 곳(착점)으로 옮기는 것도 「획득」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봄. - 대상(トガリバルブ)이 착점(手)으로 이동한 결과, 「획득」의 의미. - 이동, 착점에 초점.
	용법B(대상을 내 것으로 한다) 館岡が、ちり鍋から、ふぐや野菜を皿に取った。 <国研> - 넓게는 「획득」의 의미로 분류. - 대상 제어 가능한 곳에서 내 것으로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용법.

	용법C(대상을 해석·이해한다) こういう人たちは、あちこちに大きな病院を作ったり大学に研究所を寄付したりしています。また難民救済基金を作ったりしています。多分これで資産の大部分は使ってしまうのでしょう。これを偽善と取るか、真心と取るか、はその人しだいですが。 <国研> -넓게는 「획득」의 의미. -착점에서 획득한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함.
	용법D(대상을 선택하여 이동시킨다) 店の名前はママの名前を一文字取って、『ヒロ』と言う。 <国研> -넓게는 「획득」의 의미. -둘 이상의 것 중 하나의 대상이 선택되어 주체의 제어 가능 영역으로 이동하는 용법.
	용법E(대상을 카피한다) でも...。もし本当に心中しようとしてる男女がいたとしたら、ビデオにとるより、心中をやめさせるのが先よ。 <天使:90> -주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주체의 제어 가능 영역에서 그대로 만들어 내는 용법. -대상(상황)이 실제로 주체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이동으로 「획득」의 면에서 다름.
2.「とる」의 이미지Ⅱ	
 「とる」의 이미지 도식2	**용법F(대상을 컨트롤한다)** 吉井の築いた鉄道網をさらに上積みした奈良原は、順風満帆の中で八年にもわたって経営の舵を取った。 <国研> -주체의 제어 영역에서 제어, 조작 등과 같이 대상을 컨트롤 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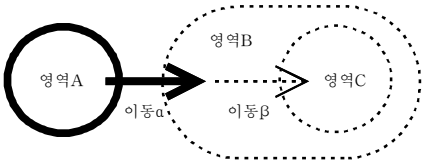
	-넓게는 「획득」의 의미가 있지만, 착점에만 초점 있음. 착점에 이동 후의 사건이 중요시 됨.
3.「とる」의 이미지Ⅲ	
 「とる」의 이미지 도식3	**용법G(대상을 제거한다)** 上に足を踏み入れた新賞金王はギャラリーの大歓声に帽子を取って笑顔で応えた。<朝日09.12.06> -대상(帽子)은 원래 있던 영역(기점)에서 이탈하여 다른 영역으로 이동. 그 결과, 기점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 곳이 초점화. (제거된 후의 대상은 주체의 의식 밖에 있기 때문에 착점은 배경화) -「제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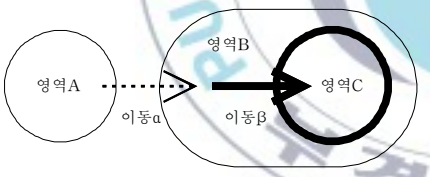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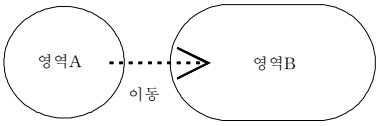
● 복합동사 「Vとる」

「Vとる」의 코어도식	
 「Vとる」의 코어도식	①영역A- 대상이 원래 있던 장소(영역). ②영역B- 행위주체가 대상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영역. 전항동사에 의한 영역. ③영역C- 행위주체가 대상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영역. 동사 「とる」에 의한 영역. ④이동α, β는 각각 영역B와 영역C로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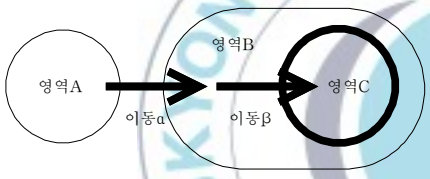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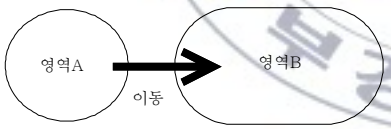
「Vとる」의 도식	용례 및 설명
Ⅰ.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 유형	
1.「획득」의 이미지 Ⅰ	
 「Vとる」의 이미지 도식1	しかし道潅は囲みを解かず城中の形勢を観ていたが、その降参は偽であることが歴然としたので、二十八日再度攻撃、外城を攻め取った。 <国研> -대상의 영역B로의 심리적 이동이 배경화. -동사 「とる」의 접속으로 대상(外城)은 주체(道潅)가 제어 가능한 영역(영역C)으로 이동, 대상 획득이 이루어지고 초점화됨. (이동β, 영역C에 초점) -영역C에서 대상을 내 것으로 함. 「とる」의 용법B 작용.
2.「제거」의 이미지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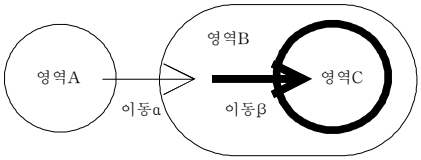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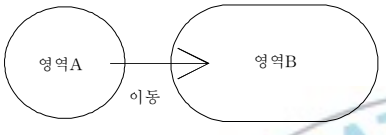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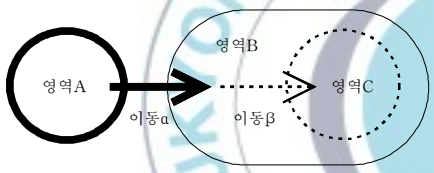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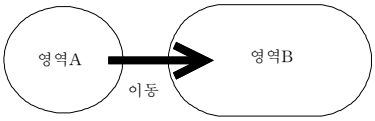
<table>
<tr><td> 

「Vとる」의 이미지 도식2</td><td>シラミを完全に除去するためにはシラミを殺傷するトリートメントでシラミを殺すか、シラミを機械的に取り除き卵を梳き取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https://www.456.com/print/11301/>
-전항동사(梳く)가 나타내는 동작이, 대상(シラミ)이 원래 존재했던 영역A에서의 이탈 혹은 제거를 나타내지 않음.
-대상의 영역B로의 심리적 이동이 배경화.
-후항동사「とる」에 의해 비로소 이탈하여 제거의 의미.(영역A, 이동α에 초점)
-「とる」의 용법G 작용.</td></tr>
<tr><td colspan="2">Ⅱ. 전항동사가 본동사 「とる」의 의미를 함의하는 유형</td></tr>
<tr><td colspan="2">1.「획득」의 이미지 Ⅱ</td></tr>
<tr><td> 

「Vとる」의 이미지 도식3
 

「掴む」의 이미지 도식</td><td>あの雪の夜、ふらりと入ったバーで、突如、激高された宗太郎様は、カウンターの奥から掴み取った包丁を振りかざし、私に迫ってまいりました。<국研>
-심리적으로 대상의 영역B로의 이동이 배경화. 영역B에서 획득의 의미보다 구체적 동작에 더 초점.
-후항동사 「とる」에 의해 영역B에서 영역C로의 이동. 영역C에서 획득의 의미.(이동β, 영역C에 초점)
-「とる」의 용법A 작용.
絶望的な状況からプロジェクトの成功をつかみ取った男たちの名言が心に染みてくるようだ。
<毎日 09.07.02>
-영역B에서 내 것으로 한다는 의미. 영역C에서 완전히 내 것으로 함. 접미사적 기능.
力強い筆遣いで自由自在に題材の本質をつかみ取った。 <毎日 09.12.14>
-영역B에서 「파악」의 의미. 영역C에서 「확</td></tr>
</table>

	실히 파악」. 접미사적 기능. -「とる」의 용법B 작용. -추상적 대상일수록 영역A가 배경화.
2.「획득」의 이미지 Ⅲ	
 「Vとる」의 이미지 도식4  「受ける」의 이미지 도식	銭湯の入口でタオルを一本受け取って、男湯と女湯に別れた。<家族:58> -「受ける」는 자기쪽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에 더 초점. -영역B에서 「획득」의 의미. 영역C에서 「직접, 제대로 V1하다」로 해석. 접미사적 기능. (이동α 이동β 영역C에 초점) -「とる」의 용법A 작용.
	そして、企業の経営というのは、よくアメリカのCEOなんかもてはやされて、そこでどんどんリストラをやって企業経営をやっていく、そして膨大な利益をCEOが受け取る、このような形がもてはやされているような風潮があります。<国研> -영역B에서 「획득」의 의미. 영역C로의 이동으로 내 것으로 한다는 의미까지 나타남. -「とる」의 용법B 작용. -영역C에서 의미확장. 접미사적 성질 아주 약함.
	変な質問になるかもしれないですが、男の人って、冗談を本気で受け取ってしまう女の人のことを、どう思いますか？ <国研> -영역B에서 「획득」의 의미. 영역C로의 이동으로 「해석·이해」의 의미까지 나타남. -「とる」의 용법C 작용. -영역C에서 의미확장. 접미사적 성질 아주 약함.

3.「획득」의 이미지 Ⅳ	
 「Vとる」의 이미지 도식5  「聞く」의 이미지 도식	監督は多くの労働者から聞き取ったデータを元にフィクションの人物4人を登場させる。 <毎日 09.03.14> -영역B에서 「획득」의 의미. 영역C에서 「확실히, 자세히 V1하다」로 해석. 접미사적 성질이 강함. 「とる」의 용법B 작용. 歯が三本しか残っていないようだったが、話が聞き取れ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女学生:58> -영역B에서 「획득」의 의미. 영역C에서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 「とる」의 용법C 작용.
4.「제거」의 이미지 Ⅱ	
 「Vとる」의 이미지 도식6 「抜く」의 이미지 도식1  「抜く」의 이미지 도식2	イワシの頭を手でちぎりながら引っ張り、内臓を抜き取る。 <朝日 09.07.01> -「抜く」는 대상을 원래 있던 곳(영역A)에서 이탈시키는 동사. 인지적 초점에 의해 「제거」의 의미를 가지거나, 대상을 이탈시키는 동작 그 자체에 초점. -전항동사에 의해 영역A에서 영역B로 이동, 동시에 후항동사「とる」에 의해 영역C로의 이동β가 있지만 배경화. -영역A와 이동α에 초점이 놓여 「제거」의 의미. -「とる」의 용법G 작용.